

농업·농촌경제동향

1999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월)로 나누어 작성되고 해당 월의 15일에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전망/관측”)

동향분석팀: 김정호 / 이규천 / 김창길

연락처: 3299-4253 / 팩스: 965-6950

목 차

< 요약 >

I. 국제경제 동향	1
1. 경제성장	1
2. 교역량 및 환율	3
3. 원유 및 국제원자재	4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5
1. 주요국의 농업과 농정	5
2. 국제 농산물 협상	13
3. 주요 곡물의 수급 및 가격	19
III. 국내경제 동향	27
1. 거시지표	27
2. 물가	31
3. 소비	36
4. 고용	38
IV. 농촌경제 동향	40
1. 농촌물가	40
2. 농가교역조건	43
3. 농업인력	44
4. 농업금융	46
5. 농산물 수출입	48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51
1. 식량작물	51

2. 채소	57
3. 과수	63
4. 축산	67
 Ⅵ. 농정 이슈	73
○ 1997/98 농업부문 주요지표 변화	73
○ 최근 미국의 농업 불황과 대책	85

< 요약 >

I. 국제경제 동향

- 1999년 세계경제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브라질,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국제자본시장의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경기침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교역량은 미국, EU 등의 수입수요가 둔화될 것이나 아시아 지역의 수출회복으로 인해 소폭의 상승세로 전망됨. 환율은 달러화 수요 증가로 미달러화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무역적자 누적 등으로 인해 약보합세로 전망됨.
- 원유 가격은 산유국의 감산 합의와 과잉 재고물량 감소로 당분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원자재 가격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의 수입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물량은 감소함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 미국은 최근 자원환경 보전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식품기준」 제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음.
 - 자발적인 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및 가축분뇨처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개선장려사업(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이 활성화됨.
- EU는 1999년 3월 12일, 농업장관회의에서 농업보조금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의 「Agenda 2000」에 합의함.
 - WTO 농업협정에 부합하여 차기 협상에서 미국과의 첨예한 마찰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일본은 1999년 4월 1일부터 쌀의 수출입 허가제를 폐지하고, 쌀 수입 관세로 종량세를 설정하며, 수입 급증시 특별긴급관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쌀 수입 관세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차기 농산물협상은 1999년 11월로 예정된 WTO 각료회의에서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며, 현재 농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정이행 결과에 대한 각국 통보안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음.
- 최근의 세계 곡물수급 상황은 옥수수, 대두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쌀과 소맥은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감수 전망과 재고량의 감소로 수급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미국의 이란, 이라크, 리비아 및 북한 등에 대한 곡물 금수조치의 해제설과 미국의 대러시아 곡물지원 및 NATO의 유고 공격 등에 의한 국제곡물시장 불안 심리 등으로 그 동안 하락세를 보여 온 밀, 옥수수, 대두의 국제곡물가격이 3월초부터 상승

III. 국내경제 동향

- 최근의 실물경제는 작년 9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 후 일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저점을 지나면서 상승국면이 계속됨.
 - 1999년 경제성장 예측치에 대해 최저 0.6%(WEFA)부터 최고 4.3%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모든 기관에서 플러스 성장을 전망함.
-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세와 국내수요 부진 지속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농수산물 가격은 오름세를 보임.
 - 농림수산품은 전년동월 대비 1월 13.8%, 2월 19.1%로 크게 상승
- 소비관련지표의 감소 폭이 1998년 11월 이후 크게 축소됨.
 - 특히 내구재 소비는 1998. 4/4분기 이후 감소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으며, 99. 1월에는 전월대비 32.4%의 상승세로 반전하여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 1999. 1~2월중의 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음.
 - 2월중 실업률은 1998. 1/4분기 이후 최고수준인 8.7%를 보여 전월에 비해 0.2% 상승

IV. 농촌경제 동향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998. 11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998. 2월을 정점으로 완만한 하락세로 이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약보합세를 나타냄.
 - 2월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1% 상승, 전월대비로는 2.3% 상승
- 1999. 2월의 패리티 지수는 전년동월 대비로는 10.2% 상승, 전월대비로는 1.7% 상승하여 농가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농림업 취업자수는 1998. 5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귀농자는 1998. 4월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1999. 2월 귀농가구수는 전년동기 대비로는 증가세를 나타냄.
-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점차 하향안정 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농업금융 여건도 빠르게 호전되고 있음. 특히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에 따른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농·축협외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 등의 조치로 인하여 농업경영의 자금난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수출은 1998년 하반기부터 대일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기타지역은 수출단가 상승 및 가공식품의 대러시아 수출 부진으로 '99년 1~2월 수출총액은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함.
 - 작년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37.6%의 사상최대 감소율을 기록했으나, 새해 들어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설날 등 계절 요인이 가세하여 수입 수요가 증가하였음.

V.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 '98년의 엘니뇨 영향으로 농작물 작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반하여 수요는 경기 회복에 따라 늘어남으로써 1/4분기의 배추, 닭고기, 계란 이외의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함.

품 목	단 위	1998(1/4) (A)	1998(4/4) (B)	1999(1/4) (C)	증감율 (%)		비 고
					C/A	C/B	
일반미	원/80kg	141,519	151,025	153,801	8.7	1.8	호남미
콩	원/70kg	132,827	175,285	198,958	49.8	13.5	국산 백태
감 자	원/20kg	24,437	19,279	27,525	12.6	42.8	
고구마	원/15kg	17,509	14,401	16,938	-3.3	17.6	
배 추	천 원/5톤트럭	1,778	2,007	1,547	-13.0	-22.9	
무	천 원/5톤트럭	1,798	2,079	2,110	17.4	1.5	
마 늘	원/kg	2,974	3,201	3,245	9.1	1.4	난지형
대 파	원/kg	824	1,019	1,286	56.1	26.2	
건고추	원/600g	2,600	4,980	5,134	97.5	3.1	화건
사 과	원/15kg	28,795	34,409	43,691	51.7	27.0	후지
배	원/15kg	33,146	30,306	45,354	36.8	49.7	신고
감 굴	원/15kg	17,778	20,014	27,158	52.8	35.7	
한 우	천 원/500kg	1,966	2,002	2,149	9.3	7.3	큰소(암)
성 돈	천 원/100kg	188	174	186	-1.1	6.9	
쇠고기	원/500g	7,461	6,191	6,610	-11.4	6.8	
돼지고기	원/500g	2,583	3,314	3,480	34.7	5.0	
닭고기	원/kg	3,311	3,238	3,051	-7.9	-5.8	
계 란	원/10개	1,160	1,073	1,069	-7.8	-0.4	

주: 도매가격 기준(한우와 성돈은 산지가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은 소비자가격임)

VI. 농정 이슈

□ 1997/98 농업부문 주요지표 변화

- 농림업 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10.9%포인트 하락한 △6.8%를 기록
 - 국민총생산의 농림업 비중은 전년대비 0.5% 줄어든 4.9%
 - 농림어업의 취업자 비중은 전년대비 1.2%포인트 증가한 12.2%
- 농가호수는 1.9% 감소, 농가인구는 1.5% 감소
 - 전업농가는 전년대비 5.8% 증가하고, 겸업농가는 12.6% 감소
 - 경지면적은 전년대비 0.7% 감소
- 농산물가격은 전년대비 3.9% 상승, 농업투입재가격은 18.7% 상승
 - 농산물 가격은 채소류가 전년대비 21.2% 상승, 곡류가 5.0% 상승, 축산물이 3.9% 상승, 과일류는 10.8% 하락
 - 투입재 가격은 전년대비 비료 41.5%, 농약 29.6%, 사료 23.4% 상승
- 농산물의 평균 유통마진율은 52.2%로 전년대비 4.3%포인트 감소
 - 농가수취율은 47.8%로 전년대비 4.3%포인트 증가

□ 미국의 농업불황과 시사점

- 최근 미국은 농산물 가격하락, 수출부진 등의 불황 국면에 봉착하여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1999년도 농업총소득은 436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5.2% 감소, 보조금 제외시 296억 달러로 전년대비 10.8% 감소할 전망
 - 이에 따라 직접소득보조, 소득안전망 등 단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수출신용차관(GSM-102) 등을 통한 수출지원책을 강구
- 미국의 농업불황은 WTO 차기협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특히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입국들의 시장개방 확대에 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I. 국제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999년 세계경제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브라질,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국제자본시장의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경기침체 상태가 지속될 전망

- 1999년 세계경제는 아시아권의 경기회복국면 진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의 성장세 둔화, 일본의 경기침체, 중남미 및 러시아의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자본시장 불안 등으로 전년대비 0.4%포인트 줄어든 1.4%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출부진으로 제조업 생산이 둔화됨에 따라 성장둔화가 예상됨.
- 일본은 '99년 소비세율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주택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침체 및 대규모 부실채권 처리지연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경기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 EU지역은 역내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등으로의 수출부진과 중남미, 러시아 등 국제자본시장의 불안으로 경기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태평양연안국은 지난해의 외환위기로 성장률이 급감했으나, 1999년에는 외환위기가 다소 진정되면서 회복세로 반전될 전망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상수지 개선, 통화 안정, 자산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완화 등 경기회복 증후가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한국과 태국은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을 이행함으로써 회복세가 가시화됨.
- 중남미는 브라질 외환위기로 인한 고금리 및 재정긴축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원자재 수출부진 등으로 제로 성장이 예상

- 중국은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및 내수증대에 힘입어 '99년도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나 성장 폭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전망
 -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주요 동구권은 브라질 및 러시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는 재정적자의 지속, 금융권의 부실채권 급증, 경제정책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물가 및 환율이 급등하고 내수가 급감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전망
- 향후 세계경제는 일본의 경기침체 지속, 브라질의 실물경기 추락, 러시아의 불황 지속 등이 더욱 심화될 경우 국제자본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침체국면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음.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GDP 기준,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세계 ¹⁾	3.5 (3.5)	3.4 (3.4)	1.8 (1.7)	1.4 (1.3)	2.3 (2.3)	3.2 (2.8)
선진국	3.0	3.0	2.1	1.3	1.6	2.4
미국	3.4	3.9	3.7	2.4	1.4	2.4
일본	5.2	1.4	△2.9	△1.7	0.3	2.1
EU	1.8	2.7	2.8	2.0	2.6	2.6
개도국	5.9	5.3	1.1	2.2	5.1	5.5
태평양연안국 ²⁾	6.6	5.2	△4.4	0.7	4.0	4.9
한국	7.1	5.5	△6.0	0.6	4.8	5.6
중국	9.7	8.8	7.4	7.4	8.2	8.5
중남미	3.2	5.1	1.2	0.0	4.2	4.3
동유럽	3.9	3.1	2.7	3.4	4.3	4.6
구소련연방	△4.3	0.7	△3.4	△3.6	2.3	3.2

주: 1) 세계 경제성장률에서 ()내의 수치는 DRI 전망치임.

2) 태평양연안국에는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및 태국이 포함됨.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st Quarter, 1999.

DRI, *World Economic Outlook*, 1st Quarter, 1999.

2. 교역량 및 환율

세계 교역량은 미국, EU 등 선진국의 수입수요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
나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의 수출회복으로 소폭의 상승세로 전망됨.
환율은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수요 증가로 미달러화는 단기적
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무역적자 누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약보합세로 전망됨.

- 세계교역량은 미국, EU 등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둔화되나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의 수출회복으로 1999년 교역량은 전년대비 0.4% 포인
트 증가한 3.4%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코소보 사태의 장기화 전망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의 달러화 수요
증가, 유럽과 일본의 금리인하 가능성으로 미달러화는 9월말 이후 약
세에서 반전되어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성장세
둔화, 무역적자 누적, 유러화 출범 등에 따른 상대적 수요감소로 인해
약보합세로 전망됨.
- 엔/달러 환율은 미·일간의 성장률 축소 및 무역수지 불균형의 영향
으로 강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마르크/달러 환율은 독일 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유러화 출범 등의 영향으로 강보합세로 전망

세계 교역량 동향 및 전망

단위: %

		1997	1998	1999 ¹⁾	2000
교 역 량	전 체	10.7	3.0	3.4	5.4
	원 자 재	5.7	1.1	3.3	5.6
	연료 · 에너지	6.3	1.0	2.5	5.5
	공 산 품	12.1	3.5	3.5	5.4
환 율	엔/달러	130.1	114.6	128.8(120.1)	120.5
	마르크/달러	1.791	1.681	1.660(1.770)	1.640

주: 1) 1999년 환율에서 ()내는 1999년 3월말 기준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st quarter, 1999.

3. 원유 및 국제원자재

원유 가격은 산유국의 감산 합의와 과잉 재고물량 감소로 당분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원자재 가격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의 수입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물량은 감소함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 국제 원유가격은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산유량 감산 합의(일당 210만 배럴, 1999.3.23)로 과잉공급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지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상승세로 전망됨.
- 유가(WTI 기준)는 과잉공급으로 1998. 12월에 20여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산유국의 감산 합의로 '99년 3월말 현재 유가는 배럴당 16.81달러로 년초 대비 35% 정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유가는 산유국간 감산합의 준수 여부가 관건임.
- 기타 원자재 가격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진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감소 및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세로 전망됨.
- 식료품 가격은 주요 곡물류에 대한 아시아권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와 미국의 수출촉진을 위한 원조물량 및 수출신용자금의 확대 등으로 소폭의 상승세로 전망

원유 및 기타 원자재가격 전망

단위: %

	1997	1998	1999	2000
WTI 유가(\$/배럴)	20.60	14.37	13.62(16.81) ¹⁾	15.43
(상승률)	(△18.9)	(△30.2)	(△5.2)	(13.3)
원자재가격	△2.7	△7.4	2.8	2.6
식료품	△6.8	△10.8	0.6	5.4
금속 및 광물	4.0	△8.0	2.2	5.5
공업용농산물	△3.0	△11.1	△3.4	△2.4

주: 1)1999년 WTI유가에서 ()내 가격은 1999. 3. 31가격을 나타냄.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st quarter, 1999.

(김창길 작성)

II.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1. 주요국의 농업과 농정

1.1 미국

□ 자원환경 보전정책을 강화하는 추세

- 농경지를 비롯한 자연자원의 항구적 보전을 위한 「토지유산 증진책」을 수립하였고, 1998년 442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여 연방정부가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농경지 및 국유림 보존 등 21세기 지역공동체의 종합적인 활력증진사업에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경종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환경농업 프로그램인 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및 집약적 가축사양 방식의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개선장려사업(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이 활성화됨.
- CRP에 가입한 농업인은 10~15년 동안 매년임대료와 비용분담 지원금에 관해 농무성과 계약하게 되는데, 최근까지 CRP에 가입한 농지가 500만 에이커에 달함.(USDA, 1999.3)

□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식품기준」 제정은 마무리 단계로 진입

- 미국의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1996년에 25억 달러, 1998년에는 40억 달러로 농업부문 산출액(1998년 1,974억 달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유기식품의 생산 및 소비 증가와 더불어 유기농산물 생산 및 취급, 생산에 있어서 금지되는 물질과 인정되는 물질, 유기식품 라벨,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취급자 증명 등 종합적인 준수사항과 지침을 담은

「국가유기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NOP)」수립이 최종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무리 단계에 있음.

- 유기식품 기준에 관해서는 1990년의 유기식품생산법(Organic Foods Production Act of 1990)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대표하는 15명의 국가유기기준위원회(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s)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연방 관보(1997.12.16)에 게시된 「국가유기프로그램(안)」의 당초 쟁점사항은 유전공학으로 처리된 유기체(GMO)와 방사선의 적용문제, 발효하지 않은 분뇨를 경작지에 살포하는 문제, 가축의 항생제 투여문제, 가공식품에서 인공원료를 사용하는 문제 등임.
 - 이들 문제는 유기식품 개념과의 양립성 여부를 놓고 논쟁이 활발하여 1998년 3월 15일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되어 있었으나, 수많은 의견이 접수되고 언론들도 관심도 커서 1998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의견을 수집한 결과 최종 275,603건이 접수되었음.
 - 여러 가지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항을 기초로 개정된 안이 연방관보(1998.10.28)에 다시 게재되어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며, 각 이슈별 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유기기준위원회가 1999. 2.9~2.11에 개최되어 NOP 수립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있음.
- 유기식품지침을 담은 NOP가 수립되면 소비자들은 유기식품라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유기식품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또한 시장 확대로 유기식품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생산자들은 허위로 유기식품라벨을 붙인 제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국제시장의 진출이 용이해지고 규모의 경제 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미국과 EU간 바나나 분쟁은 1999년 4월 6일 WTO에서 EU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인정하는 쪽으로 판정
-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입지역인 EU가 아프리카와 카리브 등 구식민지국가(ACP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쿼터를 주는 반면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에는 쿼터량 제한과 관세부과 등의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미국과 EU의 바나나 분쟁 촉발
 - 남미산 바나나를 수출하여 EU시장의 2/3 정도를 점유해 온 미국계 다국적기업(치키타, 델몬트사 등)의 이익을 대변해 온 미국은 EU가 ACP 국가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95. 9)
 - WTO 상소위원회는 구식민지 국가라는 이유로 수입우대 조치를 취하는 것은 GATT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결(1997.10)
 - 패소한 EU는 ACP국가들의 경제현실을 고려치 않은 판결이라 불만을 표명하면서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후('99.1) ACP에 무관세 쿼터(85만 7,000톤)를 계속 배정하되 여타국에도 기존 쿼터(220만톤)에 35만 3,000톤을 추가 할당하고 수입관세를 인하해 주는 개선안 마련
 - EU안에 대해 미국은 수입허가제, 수입쿼터제 등 기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유지한 채 쿼터량과 관세의 부분적 재조정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개선책을 요구하다가 EU측이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자 EU산 제품에 '99.2.1부터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98.12)한 데 이어 EU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해 WTO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공식통보(1999.1)
 - 세계무역기구(WTO)의 상소위원회는 EU의 바나나 수입제도가 남미 바나나 생산농민과 미국 바나나 유통업자를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해 미국업체에게 약 2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오게 했다고 판정 (1999.4.6)

□ 주요 농산물 가격 및 수출입 동향

- 1999년 1월 농축산물 농가수취가격은 전년도의 하락세에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옥수수는 전년동월대비로 21.5% 하락, 전월대비 4.1% 상승하였고, 돼지가격은 가격지지정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8.6% 하락, 전월대비 74.8% 상승하여 급반등세로 전환
- 1999년 1월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농산물 수출은 곡류와 육류 수입국들의 수입수요가 크게 회복되지 않아 전년동월대비 19.1% 하락, 전월대비 19.4% 하락하였고, 농산물 수입은 채소류의 수입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1% 하락, 전월대비 2.9% 하락함.

주요 농축산물의 농가수취가격 동향

	1997 년평균	1998		1999. 1	증감률(%)	
		1월	12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대비
소맥(달러/부셀)	3.45	3.32	2.87	2.86	△13.9	△0.3
옥수수(달러/부셀)	2.60	2.56	1.93	2.01	△21.5	4.1
대두(달러/부셀)	6.50	6.69	5.37	5.22	△21.9	△2.8
육우(달러/100파운드)	63.10	62.50	56.80	59.00	△5.6	3.9
돼지(달러/100파운드)	52.9	36.0	14.70	25.70	△28.6	74.8

자료: USDA(1999)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1997 년평균	1998			1999 1월	증감률(%)	
		년평균	1월	12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대비
농산물수출	57,245	51,829	4,809	4,826	3,890	△19.1	△19.4
곡물류	15,368	14,008	1,284	1,323	1,096	△14.6	△17.2
육류	4,597	4,371	330	364	329	△0.3	△9.6
과실류	2,789	2,543	167	196	181	8.4	△7.6
채소류	4,144	4,222	341	377	339	△0.6	△11.2
농산물수입	36,300	37,073	3,197	3,191	3,097	△3.1	△2.9
곡물류	2,963	2,878	216	246	217	△0.5	△11.8
육류	2,630	2,814	234	247	220	△6.0	△10.9
과실류	2,018	2,185	182	211	269	47.8	△27.5
채소류	3,707	4,375	449	426	486	8.2	14.1
농산물 무역수지	20,945	14,756	1,062	1,635	793	△25.3	△51.5

자료: USDA(1999)

(김창길 작성)

1.2. EU

□ 1999년 3월 12일, EU 농업장관회의에서 농업보조금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의 「Agenda 2000」에 합의함.

○ 농업보조금 감축의 배경

- 재정고갈의 불가피성
 - 현재 15개 회원국 이외의 중·동부 유럽 11개국의 신규영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약 750억 유로)확보를 위하여 공동 재정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대두
 - EU 집행위원회가 예산부담상환제 폐지, 부담상한선 설정, 지출부문조정 등의 방안을 98년 10월에 제시
 - 1999 농업보조금 404억 유로는 전체예산 850억 유로의 50%에 육박하여 조정이 불가피
- WTO 차기 라운드 협상기반 조성
 - 미국 등 농산물수출국의 보조금 삭감요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
- 농산물 과잉생산 완화
 - 휘슬러(Fischler) 농업담당 집행위원의 2005년 곡물 5,100만톤, 쇠고기 150만톤의 재고발생 경고

○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주요내용

- 경종작물
 - 보증가격(intervention price)을 20% 인하
(2000년에 10%, 2001~2년에 10%)
 - 휴경보상 프로그램을 2002~3년 중 폐지(2000~1년에 10%)
 - 곡물보조는 톤당 54.34유로에서 66유로로 증액
- 쇠고기
 - 지지가격을 2000년부터 3년 동안 20% 인하
(톤당 2,780유로에서 2,224유로)

- 안전망 발동 수준을 25% 인하
(2000년의 2,085유로에서 1,560유로)
- 2002년부터 개인 비축제도 운영
- 우유
 - 지지가격을 2003년부터 3년에 걸쳐 15% 인하
 - 2003년부터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북아일랜드, 영국을 제외한 전 회원국의 쿼터를 1.5%씩 증가시킴.
- 농업보조금 감축합의에 대한 평가
 - EU의 농업경쟁력 강화
 - 소비자들의 식품비용지출 감소
 - WTO 농업협정에 부합하여 차기 협상에서 미국과의 첨예한 마찰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음.
- 기타 농정 동향
 - 브리튼 EU집행위원은 WTO차기 각료회의 의제로 환경이슈를 핵심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환경농업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 영국의 클레르 쏿 국제개발 장관은 WTO 차기협상이 개발도상국에 혜택을 주는 “개발라운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규천 작성)

1.3. 일 본

□ 1999년 4월 1일부터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관세화로 개방

- 일본 참의원 본회의는 3월 31일 식량법, 관세정율법, 관세잠정조치법 등을 개정하여 쌀의 수출입 허가제를 폐지하고, 쌀 수입관세로 종량세를 설정하며, 수입 급증시 특별긴급관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쌀 수입 관세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쌀 관세화의 내용>

- 관세화 시기 : 1999년 4월 1일
- 관세 설정방식 : 종량세
- 관세 부과액 : 1999년 351.17엔/kg, 2000년 이후 341.00엔/kg

※ MMA 수입쌀은 국영무역 유지

- 1999년 72.4만톤(현미), 특례조치 계속시는 76.7만톤
- 2000년 이후 76.7만톤(현미), 특례조치 계속시는 85.2만톤

- 일본 정부는 의무수입량 축소, 고율관세 부과 등의 실리를 얻으면서 차기협상에서 쌀 관세화의 쟁점에서 벗어나 다른 품목의 관세율 교섭, 농업보조금 등 국내 농업보호 문제에 협상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함.

□ 일본의 쌀 관세화에 대한 각국의 반응

- 일본은 1998년 12월 17일 각의에서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이를 12월 21일 WTO 사무국에 통보하였음.
- WTO는 일본의 갑작스런 결정에 반대하였으며, 각국은 쌀 관세화를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고율관세에는 강한 불만을 표시
 - 일본은 관세 부과액이 WTO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
 - 호주와 우루과이는 쿼터 외 수입쌀의 관세가 390%나 인상된 것이라고 하며, 3월 20일 WTO에 제소
 - 미국은 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11월에 열리는 WTO 각료회담에서 관세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 『신농업기본법』이 3월 9일 각의에서 의결되어 의회에 제출

- 농림수산성은 1997년 4월부터 새로운 농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1998년 12월 8일 「농정개혁대강·프로그램」을 확정하였으며, 이 시책을 구체화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안)」을 작성하여 1999년 3월 9일 의회에 제출함.
- 의회의 법안 심의를 거쳐 금년 5~6월 경에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

현행 기본법과 신기본법의 비교

	현행 기본법 농정체계	신기본법 농정체계
목적	○ 농업의 발전, 농업종사자의 지위향상 - 농업과 타산업간 생산성격차 시정 - 생활 수준의 균형	○ 국민적 관점에서 농업분야 만이 아니라 식료·농촌분야 까지 대상을 확충 - 식료정책, 농촌정책의 방향을 명시
식료 정책	○ 관련 규정 없음	○ 국내 농업의 식료공급력 강화 ○ 종합적 식료안정보장정책의 확립
농업 정책	(구조정책) ○ 규모확대 등을 통한 자립경영 육성과 농업경영의 근대화	○ 농업종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의욕 있는 다양한 경영주체의 확보와 육성
	(가격유통정책) ○ 가격정책을 통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	○ 시장원리의 활용과 의욕있는 경영주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안정대책
	(생산정책) ○ 수급사정에 대응한 농업생산의 선택적 확대	○ 국민의 기대에 대응한 다종 다양한 식료 생산 ○ 환경보전에 유의하고 지속적 생산을 위한 농법 추진
농촌 정책	○ 농촌정책 관련규정은 교통·위생·문화 등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 농업·농촌이 가진 다면적 기능 중시 ○ 아름답고 살기좋은 농촌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정비 ○ 중산간지역에 공적 지원 - 직접지불제 도입(2000년)
추진 방법	○ 관련규정 없음	○ 정책의 프로그램화와 정기적인 수정 - 향후 3~5년간 추진할 시책을 프로그램화, 5년마다 정책 전체를 수정

(김정호 작성)

2. 국제 농산물 협상 : 세계무역기구(WTO)의 논의

차기 농산물협상은 1999년 11월로 예정된 WTO 각료회의에서 논의가 개시될 전망이다, 현재 농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정이행 결과에 대한 각국의 통보안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음. 3월 24~26일에 열린 제18차 농업위원회에서 우리 나라는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분야에 관한 추진상황을 제시하고, WTO 협정에 합치되도록 농정제도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힘.

2.1.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 1995년 WTO 출범 이후 1999년 3월 현재까지 모두 18차례의 농업위원회 공식회의가 열림. 공식회의의 목적은 농산물 협정 이행결과에 관한 회원국들의 통보 안을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함.
- 1999년 3월 24~26일에 열린 제18차 공식회의는 우리 나라를 비롯해 모두 28개국의 통보안에 관해 점검함. 여기서 우리 나라는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분야에 관한 통보 안을 제시함.
 - 우리 나라의 통보 안에 대하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미국 등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함.
 - 일부 품목의 시장접근물량(MMA) 수입 불이행
 - 고구마, 밀 전분에 대한 특별긴급피해 구제제도(SSG)의 적용기준
 -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주스에 대한 관세할당제도(TQS)가 계획대로 폐지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용 관세율
 - 의무면제(De-minimis) 계산에서 기준으로 삼은 해당연도 생산액
 - 쇠고기의 수입자격을 넓힌 조치와 수입 쇠고기의 구분판매제도
 - 우리 나라는 답변을 통해 농산물 협정에 따라 모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제기된 문제들에 관해 설명함.

- 미국이 제기한 쇠고기 수입에 관한 사항은 외환위기에서 비롯한 수입 감소가 1999년 들어 회복되면서 쿼터 수입량도 순조롭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함. 또한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함.
- 일본은 쌀 관세화에 관해 설명하고 계획대로 1999년 4월 1일부터 관세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일부 국가들이 제기한 문제에 따라 이행계획서의 수정작업과 양자협약이 진행되고 있으나 관세화는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강조함.
 - 호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수출국들은 일본의 쌀 관세화 조치를 환영하지만, 관세상당치(TE)를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캐나다는 시장접근 분야에 관한 이행실적 통보 안, 특히 SSG와 관세 할당(TRQ)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보 양식을 바꾸자고 제안함.
 - 일본과 멕시코 등은 일부 회원국들이 지금의 통보양식에도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보 양식의 개정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냄.
- 그 밖에도 우리 나라의 파콘, 감자전분, 땅콩 등의 할당량에 대한 관세 감축방식, 베네주엘라의 분유에 관한 관세, 폴란드의 곡물수출에 관한 보조, 루마니아의 담배세 등이 논의됨.

2.2. 분석 및 정보교환(Analysis and Information Exchange: AIE)

- AIE는 WTO 농업위원회에서 농업협정과 그 이행, 그리고 차기 협상과 관련된 사항들을 회원국들이 서로 제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작업임.
 - 1997년부터 시작해 1999년 3월 현재 총 53개의 AIE 비공식 제안서(informal paper)가 제출되어 회원국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전개됨.

- 주요 내용은 TRQ 관리, 직접지불, 수출보조, 국내보조(개혁), SSG,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등임. 이들은 차기 협상에서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비공식 제안서를 제출한 주요 국가는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임. 우리 나라는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에 관한 제안서(AIE/39)를 제출한 바 있음.
- 1999년 3월에 열린 AIE 회의는 NTC, 평화조항(Peace Clause), TRQ 관리방식, 국내보조, 수출신용 등을 다룸.
- 수출국들은 식량안보가 현행 협정의 틀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신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힘.
 - 수출국들은 환경보전이란 명목으로 국내시장을 보호하려는 논리에 경계를 나타내고, 이러한 정책이 갖는 특정성, 생산과 연계, 제3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적함. 반면에 노르웨이, 스위스, 유럽연합, 일본, 우리 나라 등 식량 수입국들은 사회수요에 따른 정책, 농업의 공공재 공급, 국내 사례 등을 들어 수출국들의 논리에 대응함.
 - 2003년 말로 종료되는 평화조항(농업협정 제13조)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에 많은 회원국들이 그 필요성을 동의함.
 - TRQ 관리방식의 문제를 지적한 미국의 제안에 수출국들이 동조하여 TRQ의 운영권 배분, 국가 할당량, 단일창구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이에 대해 수입국들은 TRQ의 운영지침이 필요하지만, 수입 실적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대응함.
 - 국내보조 분야에서 뉴질랜드는 블루박스(Blue Box) 조항이 소수 국가들에 국한되어 활용되면서 AMS의 감축의무를 피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스위스, 일본, 우리 나라 등은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힘.

2.3. 무역환경위원회

- 무역환경위원회(CTE)는 무역과 환경 연계에 관한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오고 있음. 1995년부터 1996년 말 싱가포르 각료회의 때까지 총 10차례,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3차례의 공식회의를 가짐.
-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가장 초점이 된 논제는 [의제 6]으로, 특히 농업분야에서 ‘무역제한이나 왜곡을 없앴으로 얻는 환경이익’에 관한 사항임.
 - 케언즈 그룹을 중심으로 한 수출국들은 농업생산 보조와 수출 보조, 그리고 국영무역 등의 정책이 시장과 가격을 왜곡시킴으로써 무역을 방해하며, 그 결과 자원배분 효율을 떨어뜨리고 집약생산을 가져와 환경침해가 더욱 커진다고 주장함.
 - 수출국들은 무역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을 확대하는 자유화를 요구하고 국내정책에 대해서는 외부효과의 오염자부담원칙(PPP) 적용과 정부의 시장간섭 배제를 주장함.
 - 우리 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농업의 공공재 측면을 강조하면서 농업생산에 대한 보조가 정당함을 주장함. 특히 노르웨이는 공급자수혜원칙(Provider Gets Principle)이 양(+)의 외부효과에 적용되어야 하고, 농업생산과 결합된 공공재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1999년 3월 9~11일에 노르웨이는 ‘다면적 기능의 농업과 NTC’란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2.4. WTO 고위급 무역·환경 심포지엄

- 1999년 3월 15~16일에 WTO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환경 심포지엄(High Level Symposium on Trade and the Environment)은 회원국, 관련 국제기구, NGO 대표들이 참석하여 무역과 환경에 관련한 3개 패널 의제들(무역과 환경의 연계, 무역자유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상승작용, 무역과 환경단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논의함.

- 다자환경협약(MEA)에 따른 무역관련 규정을 GATT 제20조에 수용하는 문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유럽연합 등은 MEA의 무역관련 규정을 GATT 규정 안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미국은 현행 규정이 MEA의 무역조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개도국들은 규정의 개정이 선진국들의 환경 보호주의를 명문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함.
- 미국과 환경 NGO를 제외한 많은 참석자들은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일방적 무역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다자합의를 통해 지역적·국제적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 환경표시제(eco-labelling)와 생산 및 공정방식(PPM)에 관해 선진국과 환경관련 NGO, 개도국과 산업관련 NGO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함.
 -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환경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환경인식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생산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반면, 개도국들은 환경표시제가 선진국 시장에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제품 무관련(NPR) PPM을 반대함.
 - 환경관련 NGO들은 PPM에 따른 규제를 주장한 반면, 산업관련 NGO들은 생산방식·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함.
- 무역자유화가 환경보전의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원을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제시됨. 그러나 환경효과의 실현에는 알맞은 국내 환경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됨.
 - 호주 등 케언즈(Cairns) 그룹은 농업보조가 무역자유화의 걸림돌이라고 규정하고, 보조금에 의한 집약생산이 환경침해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수출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경제개발을 저해한다고 주장함.
 - 일본, 노르웨이, 우리 나라 등은 무역자유화의 틀 안에서만 농업보조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각국의 고유한 사회·경제·문화의 틀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대응함.

2.5. 평가와 전망

- WTO 농업위원회는 공식회의를 통해 회원국의 농업협정 이행결과에 관한 통보 안을 점검하고 논의함으로써 회원국 농업정책의 투명성과 다자 규범에 의한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 WTO/AIE 작업은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회원국들의 관심사에 대해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농업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함. 동시에 차기협상과 관련해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파악함으로써 차기협상을 가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1998년 3월에 OECD 농업각료회의가 공동선언문에서 밝힌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이 최근 AIE 작업내용에 포함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됨.
 - 1999년 3월까지 53개 AIE 제안서가 상정됨으로써 대부분의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평가되며,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의제가 등장하지 않는 한 AIE 작업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AIE 작업을 통하여 예견할 수 있는 차기협상에서 주요 쟁점들은 TRQ 관리, 블루박스(blue box), 평화조항, NTC, 환경 등임.
- 무역·환경 연계에 관한 논의는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농업정책의 개혁, 바람직한 환경정책 도입, 무역의 환경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등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임.
 - 나라마다 고유한 여건으로 무역자유화의 환경영향이 자동적이거나 획일적이지 않다는 점과 식량안보, 농촌활력 유지 등의 NTC 논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MEA에 의한 무역조치와 PPM을 GATT 규정에 포함하는 문제, 환경표시제, NTC, 농업보조와 환경의 연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계속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임송수 작성)

3. 주요 곡물의 수급 및 가격

3.1. 세계의 주요곡물 수급 상황

최근의 세계 곡물수급 상황은 생산량의 감소와 소비량의 증가로 수급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옥수수, 대두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쌀과 소맥은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감수 전망과 재고량의 감소로 수급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전체곡물

- 1998/99년도 세계곡물 생산량은 전월 예측치에 비해 옥수수가 약간 줄고 대두, 소맥, 쌀이 약간 늘어 총 18억 4,320만톤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대비로는 1.8% 감소, 전월 예상치 대비 0.1% 감소한 것임.
- 1998/99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18억 5,860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0.8%, 전월예상치 대비로는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말재고량은 3억 1,150만톤으로 전년대비 4.2% 감소, 전월예측치 대비로는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량 대비 재고량의 비율은 16.8%로 FAO권장 수준(16~17% 정도)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세계 전체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 톤

	1996/97 실적치	1997/98 추정치	1998/99 전망치		변동율(%)	
			1999. 2월	1999. 3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1,870.2	1,876.8	1,844.7	1,843.2	△1.8	△0.1
공급량	2,124.4	2,167.0	2,168.6	2,168.2	0.1	0.0
교역량	252.4	250.4	238.4	238.9	△4.6	0.2
소비량	1,834.2	1,842.0	1,855.7	1,856.8	0.8	0.1
기말재고량 (재고율)	290.2 (15.8)	325.1 (17.6)	313.0 (16.9)	311.5 (16.8)	△4.2	△0.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48, March 11, 1999.

소 맥

- 1998/99년도 소맥 생산량은 전월 예측치 대비 0.1% 증가, 전년대비 3.8% 감소한 5억 8,660만톤으로 전망되는데, 수입량은 전월대비 0.1% 증가할 전망이다.
- 소맥 소비량의 증가가 전망되어 기말재고량의 감소가 전망됨.

옥수수

- 1998/99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전월 예측치 대비 약간 줄어든 5억 9,370만톤으로 전년대비 3.4% 증가, 소비량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5억 8,470만톤 수준임.
- 기말재고량은 미국의 재고 증가로 전년대비 10.6% 증가할 전망이지만 전월대비로는 2.8% 감소한 수준임.

대 두

- 1998/99년도 대두 생산량은 전월 및 전년대비 약간 증가한 1억 5,810만톤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미국의 대두 재고량이 전월대비 14.3%, 전년대비 137% 증가할 전망이다.

쌀

- 1998/99년도 쌀 생산량은 전월대비 약간 증가한 3억 7,800만톤으로 전망되나, 전년과 비교하여 2.1% 감소한 수준이고 소비량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망됨.
-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2.1% 감소한 4,570만톤으로 전망됨.

3.2. 국제곡물가격 동향 및 전망

최근 미국의 이란, 이라크, 리비아 및 북한 등에 대한 곡물 금수조치의 해제설과 미국의 대러시아 곡물지원 및 NATO의 유고 공격 등에 의한 국제곡물시장 불안 심리 등으로 그동안 하락세를 보여왔던 밀, 옥수수, 대두의 국제곡물가격이 3월초부터 상승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곡물 가격 동향

단위: \$/톤,FOB

품 목	1996	1997	1998	1999		변동률(%)	
				2월	3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소맥	153.10	153.10	119.70	118.70	124.56	4.1	4.9
옥수수	118.41	118.41	102.66	94.32	101.27	△1.4	7.4
대두	291.54	291.54	234.33	190.67	193.50	△17.4	1.5
쌀(중립종)	420.92	420.92	430.70	473.99	479.50	11.3	1.2

주: 소맥은 US Portland, White Wheat 1 등품가격이며, 옥수수와 대두는 US Gulf 2등품 가격이고, 쌀은 U.S. California, Medium 1등품 가격임. 1999년 3월 가격은 3월 26일 기준 가격임

자료: 한국경제신문, UNICOM.

소 맥

- 미국의 러시아 곡물지원과 NATO의 유고 공격에 의한 국제곡물시장에서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어 그 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소맥의 국제가격은 지난 2월을 고비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9. 3. 26일 현재 톤당 124.56달러로 전년대비 4.1%, 전월 대비 4.9% 상승함.
- 향후 소맥의 국제가격은 주요 수입국의 밀 수요가 크지 않지 않지만 기말재고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옥수수

- 옥수수의 국제가격은(1999.3.26 기준) 전월대비 재고량의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전월대비 7.4% 상승한 톤당 101.27달러로 상승세를 보임.
- 향후 옥수수 국제가격은 공급측면의 호조 요인으로 약세를 보이지만 최근 수요측면의 불안정 요인으로 당분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회복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임.

대두

- 대두 국제가격은(1999.3.26 기준) 미국 및 아르헨티나의 작황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미국의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측면에서 불안정 요인이 반영되어 전월대비 1.5% 상승한 톤당 193.50달러를 나타냄.
- 향후 대두의 국제가격은 기상여건 및 미국의 CRP에 따른 식부면적 감소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대체로 상승세 내지는 보합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쌀

- 중·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1999.3.26 기준) 재고량 감소 및 미국의 인도네시아 지원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1.3%, 전월대비로는 1.2% 상승한 톤당 479.50달러임.
- 향후 중·단립종(자포니카형) 쌀의 국제가격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생산 및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소맥 수급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6/97 실적치	1997/98 추정치	1998/99 전망치		변동률(%)	
			1999. 2월	1999. 3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106.7	112.8	137.5	137.9	22.3	0.3
생산량	582.8	610.0	586.2	586.6	△3.8	0.1
중국	110.6	123.3	110.0	110.0	△10.8	0.0
미국	62.0	67.5	69.4	69.4	2.8	0.0
EU-15	98.5	94.2	103.4	103.5	9.9	0.1
수입량	119.8	123.0	111.4	111.5	△9.3	0.1
EU-15	22.9	25.8	20.8	20.8	△19.4	0.0
북아프리카	14.4	17.5	15.3	15.3	△12.6	0.0
브라질	5.6	6.2	5.8	5.8	△6.5	0.0
이용량						
소비량	576.7	584.9	595.8	597.1	2.1	0.2
중국	112.4	114.9	116.0	116.0	1.0	0.0
EU-15	79.5	82.6	87.2	87.2	5.6	0.0
미국	35.4	34.2	37.1	37.1	8.5	0.0
수출량	125.2	122.5	111.8	111.8	△8.7	0.0
EU-15	38.3	36.0	34.6	34.1	△5.3	△1.4
미국	27.3	28.3	27.9	28.6	1.1	2.5
캐나다	19.5	20.1	15.0	14.5	△27.9	△3.3
기말재고량	112.8	137.9	127.9	127.4	△7.6	△0.4
중국	24.2	33.4	28.4	27.9	△16.5	△1.8
EU-15	14.8	16.1	18.5	19.1	18.6	3.2
미국	12.1	20.0	26.7	26.0	30.0	△2.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48
March 11, 1999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6/97 실적치	1997/98 추정치	1998/99 전망치		변동률(%)	
			1999. 2월	1999. 3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68.8	92.1	86.4	86.2	△6.4	△0.2
생산량	591.2	574.0	596.8	593.7	3.4	△0.5
미국	234.5	233.9	247.9	247.9	6.0	0.0
중국	127.5	104.3	124.0	124.0	18.9	0.0
EU-15	34.8	38.6	34.1	34.2	△11.4	0.3
수입량	71.4	71.4	69.8	70.5	△△1.3	1.0
일본	16.0	16.4	16.0	16.0	2.4	0.0
EU-15	10.2	10.2	10.6	10.6	3.9	0.0
한국	8.3	7.5	7.0	7.0	△6.7	0.0
이용량						
소비량	567.9	579.8	585.3	584.7	0.8	△0.1
미국	177.6	185.1	192.3	192.3	3.9	0.0
중국	113.4	117.4	117.4	117.4	0.0	0.0
EU-15	36.0	38.8	37.2	37.2	△4.1	0.0
수출량	73.3	72.2	71.3	71.3	△1.2	0.0
미국	45.6	38.2	43.8	45.7	19.6	4.3
아르헨티나	10.8	12.5	9.0	9.0	△28.0	0.0
중국	3.9	6.2	4.0	4.0	△35.5	0.0
기말재고량	92.1	86.2	98.0	95.3	10.6	△2.8
미국	22.4	33.2	45.4	43.5	31.0	△4.2
중국	45.0	26.0	29.0	29.0	11.5	0.0
EU-15	3.3	4.4	3.3	3.4	△22.7	3.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48, March 11, 1999.

세계 대두 수급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6/97 실적치	1997/98 추정치	1998/99 전망치		변동률(%)	
			1999. 2월	1999. 3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17.5	13.5	19.4	20.8	54.1	7.2
생산량	132.2	157.0	156.3	158.1	0.7	1.2
미국	64.8	73.2	75.0	75.0	2.5	0.0
브라질	27.3	31.5	30.5	31.0	△1.6	1.6
아르헨티나	11.2	19.2	18.0	19.2	0.0	6.7
수입량	36.4	40.3	39.0	38.6	△4.2	△1.0
EU-15	15.3	16.9	16.0	15.8	△6.5	△1.3
일본	5.0	4.9	4.6	4.6	△6.1	0.0
중국	2.3	2.9	3.6	3.5	20.7	△2.8
이용량						
소비량	135.7	149.5	151.7	151.4	1.3	△0.2
미국	42.4	47.8	47.4	46.6	△2.5	△1.7
중국	15.3	17.5	16.9	17.1	△2.3	1.2
EU-15	16.1	17.7	17.2	16.9	△4.5	△1.7
수출량	36.9	40.4	38.8	38.6	△4.5	△0.5
미국	24.0	23.7	22.0	21.2	△10.5	△3.6
브라질	8.4	8.8	9.2	9.5	8.0	3.3
아르헨티나	0.8	3.2	3.0	3.3	3.1	10.0
기말재고량	13.5	20.8	24.2	27.5	32.2	13.6
미국	3.6	5.4	11.2	12.8	137.0	14.3
아르헨티나	3.4	7.1	5.4	6.9	△2.8	27.8
브라질	4.0	6.0	5.3	5.4	△10.0	1.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48,
March 11, 1999.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6/97 실적치	1997/98 추정치	1998/99 전망치		변동률(%)	
			1999. 2월	1999 3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49.8	50.4	51.2	52.0	3.2	1.6
생산량	380.3	386.0	377.7	378.0	△2.1	0.1
중국	136.6	140.5	133.0	133.0	△5.3	0.0
인도네시아	32.1	31.5	33.0	33.0	4.8	0.0
베트남	18.0	18.9	18.5	18.5	△2.1	0.0
미국	5.5	6.0	6.1	6.1	1.7	0.0
수입량	16.8	24.2	21.3	23.0	△5.0	8.0
인도네시아	0.8	6.1	2.0	2.5	△59.0	25.0
일본	0.5	0.5	0.7	0.8	60.0	14.3
중국	0.3	0.3	0.3	0.3	0.0	0.0
이용량						
소비량	379.8	384.3	385.0	384.2	0.0	△0.2
중국	132.1	135.9	137.0	136.8	0.7	△0.1
인도네시아	34.0	36.9	35.2	35.7	△3.3	1.4
일본	9.2	9.3	9.2	9.2	△1.1	0.0
수출량	20.1	26.9	22.8	22.8	△15.2	0.0
태국	5.3	6.4	5.5	5.5	△14.1	0.0
베트남	3.3	3.8	3.5	3.5	△7.9	0.0
미국	2.5	2.8	2.8	2.7	△3.6	△3.6
기말재고량	50.4	52.0	43.8	45.7	△12.1	4.3
중국	25.6	26.7	21.8	21.8	△18.4	0.0
일본	3.1	2.9	2.2	2.2	△24.1	0.0
인도네시아	1.5	2.2	2.0	2.0	△9.1	0.0
미국	0.9	0.9	1.0	1.0	11.1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48, March 11, 1999.

(성명환 작성)

Ⅲ. 국내경제 동향

1. 거시지표

실물경제는 작년 9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 후 최근 들어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저점을 지나면서 상승국면이 지속됨.

- 1998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하여 3/4분기의 7.1% 감소보다 감소세가 둔화됨.
 - 4/4분기중에는 내수부진이 완화되고 수출증가세도 다소 회복된 데 힘입어 성장률의 감소 폭이 축소됨
- 1998 4/4분기 농림어업 생산은 9.0%의 감소를 보여 3/4분기의 7.0% 감소에 비해 감소세가 확대됨.
- 1999년 2월중 산업생산(4.0%)은 '98 11월 이후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설 요인으로 증가세가 둔화(1월중 14.7%)
 - 1월중에는 기계장비($\Delta 0.3\%$), 인쇄출판($\Delta 16.7\%$)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4.7% 증가
 - 1월중 중화학 업종의 생산은 18.9%, 경공업 업종은 2.8% 증가하였고 생산자제품 출하도 수출용출하 23.3%, 내수용 출하 6.1% 증가에 기인하여 12.8% 증가
 - 재고도 1월중 음식료품과 기타 전기기계를 제외하고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동월대비 16.6%, 2월중 17.9% 감소
 - 2월중 산업생산은 설 특수(4.9%)를 제외할 경우 8.9%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반도체 이외의 업종도 1월(8.3%)에 이어 증가세(3.2%)가 지속되어 경기회복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

산업별 경제성장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8				
	1/4	2/4	3/4	4/4*	연 간*
전 산 업	△3.6	△7.2	△7.1	△5.3	△5.8
농 립 어 업	6.2	△3.5	△7.0	△9.0	△6.3
제 조 업	△4.6	△10.4	△9.1	△4.7	△7.2
서 비 스 업	△4.5	△7.4	△6.2	△3.4	△5.4

* 한국은행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산업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연 간	12월	1월	2월
GDP	△5.8	-	-	-
생산	△7.3	4.8	14.8	4.0
(반도체제외)	-	△5.8	8.3	△1.5
출하	△7.1	3.2	12.8	6.6
재고	△17.3	△17.3	△16.6	△17.9
(전월비)	-	△0.6	△3.7	△2.1
재고율	-	92.9	91.9	86.2
제조업가동률	68.1	70.9	69.2	69.9

자료: 재정경제부

□ 1999년 2월 총통화량은 30.0%의 증가를 보여 전월의 증가율 26.6%에 비해 크게 상승

- 총 통화량 증가율은 저축성예금으로 자금이동이 지속되고 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통화공급이 확대됨.
- MCT 증가율은 은행신탁계정의 자금이탈과 고금리 CD 발행축소에 따라 낮은 수준의 증가율(5.3%)을 유지함.
- 본원통화는 전월(20.2조원)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21.5조원 수준을 기록함.

통화지표 동향

단위: 평잔기준,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M ₁	△19.7	△9.1	△12.2	△14.0	△10.8	5.7
M ₂ (총통화)	21.2	26.4	26.1	21.5	26.6	30.0
MCT	5.7	6.1	5.2	2.6	3.6	5.3
M ₃	13.1	13.5	13.1	12.4	-	-
본원통화(조원)	19.2	20.7	19.8	20.2	20.2	21.5

자료: 한국은행

□ 1999. 2월중 단기금리는 하락, 장기금리는 상승

- 콜금리는 2월 평균 5.56%로 전월 6.23%에 비해 하락하고, 회사채수익률은 전월의 7.89%에서 8.56%로 상승하였음.

시중 자금사정 동향

단위: 월평균, %

	1998		1999	
	2월	12월	1월	2월
콜금리	25.20	6.72	6.23	5.56
CD유통수익률	22.46	7.70	7.00	6.70
회사채유통수익률	19.78	8.30	7.89	8.56

자료: 재정경제부

□ 원화 환율은 전년동기대비 점차 절하폭이 둔화되어 98년 4/4분기에는 11.8%의 절하율을 보이다가 99년 1/4분기에는 25.7%의 절상률을 보여 달러당 1,200원 수준에서 안정추세를 보임

분기별 달러 환율 동향

단위: 기간중 평균기준환율, 전년동기대비

	1998				1999
	1/4	2/4	3/4	4/4	1/4
대미환율	1,611.7	1,394.6	1,325.2	1,279.4	1,197.6
원화 절상률(%)	△86.2	△56.4	△47.5	△11.8	25.7

자료: 한국은행

□ 1999년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연구기관들의 경제성장 예측치는 최저 0.6%(WEFA)부터 최고 4.3%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모든 기관에서 플러스 성장을 전망함.
- 경상수지의 흑자규모는 200억달러(정부)에서부터 355억달러(WEFA)로 전망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5%(WEFA)부터 1.2%(산업연구원)로 전망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주로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실업률은 최고 8.0%(피치-IBCA, 현대경제연구원)부터 최저 7.4% (한국개발연구원)으로 예측하여 7~8% 수준으로 전망함.

연구기관별 경제 전망

구분	기관명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흑자 (억달러)	
		1998	1999	1998	1999	1998	1999	1998	1999
국내 기관	정부	△5.0	2.0	-	3.0	-	7.5	-	200
	한국개발연구원	△6.5	4.3	7.6	2.0	7.2	7.4	373	238
	한국은행	△6.4	3.2	-	3.1	-	7.7	-	210
	산업연구원	△6.6	3.6	7.8	1.2	-	-	393	233
	LG경제연구소	△6.2	4.0	7.4	2.2	7.2	7.9	386	208
	현대경제연구소	△5.5	3.1	7.7	2.1	7.0	8.0	395	228
국외 기관	WEFA	△6.0	0.6	7.2	10.5	-	-	410	355
	피치-IBCA	-	4.0	-	3.0	-	8.0	-	311

2. 물 가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세와 국내수요 부진 지속으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농수산물 가격은 오름세를 보임.

- 1999. 1/4분기중 생산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5% 하락, 전분기 대비로도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냄.
 - 1월과 2월의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1.8%, 4.3% 하락
 - 농림수산품은 전년동월대비 1월 13.8%, 2월 19.1%로 크게 상승
 - 1월에는 작년의 작황부진에 따른 출회부진으로 과실류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
 - 2월에는 작황 부진과 설날 특수로 인해 과실류, 채소류, 축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
 - 3월에는 설날 이후의 수요감소로 축산물 가격이 2.1% 하락한 반면, 과실류는 산지 저장물량 감소로 가격이 5.9%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17.0% 상승
 - 공산품은 국제원자재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1월에 2.8%, 2월에 6.8%, 3월에 6.4% 하락세가 지속됨.
 - 원자재와 중간재의 가격은 1/4분기중 전년동월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나 최종재는 1월에 0.4% 상승하고, 2월에 1.8% 하락, 3월에 1.7% 하락하여 하락폭이 소폭에 그침.
 - 전분기, 전월대비 생산자물가는 1월에 1.1%, 2월과 3월에 각각 0.2% 하락하여 안정되는 추세를 보임.
 - 농림수산품은 상승폭이 2월에는 커졌지만 3월 들어서는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
 - 광산품은 3월에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공산품은 전월의 0.9% 하락에서 0.3% 소폭 상승으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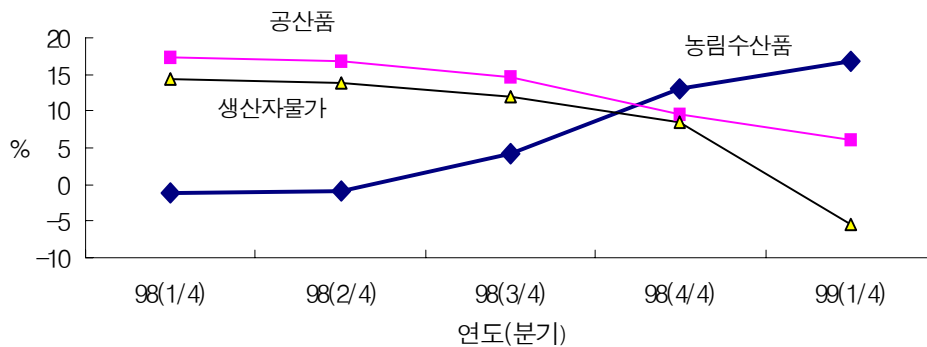
품목별 생산자 물가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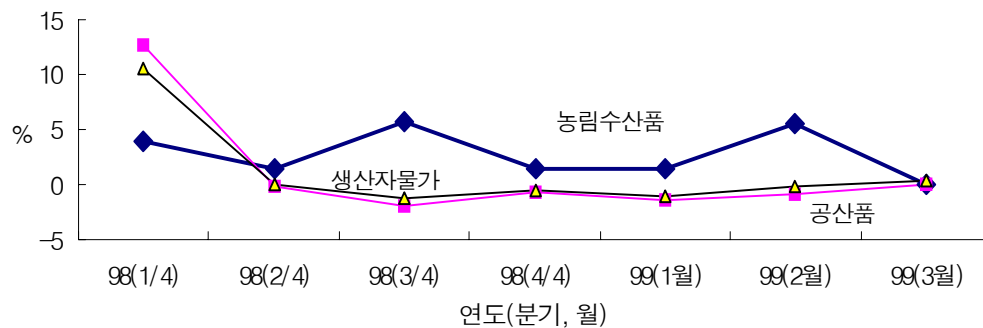
	1998				1999			
	1/4	2/4	3/4	4/4	1월	2월	3월	1/4
농림수산물 (전기대비)	△1.1 (3.9)	△0.9 (1.4)	4.3 (5.8)	13.1 (1.4)	13.8 (1.4)	19.1 (5.5)	17.0 (0.0)	16.7 (7.2)
광 산 품	4.8	8.8	7.5	8.0	8.2	7.4	3.2	6.2
공 산 품 (전기대비)	17.2 (12.7)	16.7 (△0.2)	14.6 (△2.0)	9.5 (△0.8)	△2.8 (△1.4)	△6.8 (△0.9)	△6.4 (0.3)	△5.4 (△2.6)
전력수도가스	18.5	17.2	12.0	8.1	1.7	△0.4	△0.4	0.2
원 재 료	45.9	23.1	16.9	△0.7	△36.7	△30.9	△25.1	△31.2
중 간 재	36.8	27.8	22.2	11.2	△15.0	△17.7	△15.8	△16.2
최 종 재	15.9	15.0	14.3	12.1	0.4	△1.8	△1.7	△1.1
전 체 (전기대비)	14.4 (10.6)	13.9 (0.0)	12.0 (△1.3)	8.6 (△0.5)	△1.8 (△1.1)	△4.3 (△0.2)	△4.3 (△0.2)	△3.5 (△1.7)

자료: 한국은행

품목별 생산자물가(전년동기대비)



주요품목 생산자물가 변동추이(전분기, 전월대비)



- 1999.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집세(△3.2%), 개인서비스(△1.2), 공업제품(△0.9%)이 하락하였으나, 농축수산물(9.2%)과 공공서비스(3.3%)가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0.7% 상승함.
- 1월의 소비자물가는 전월수준을 유지하였고, 2월에는 1월 대비 0.4% 상승했으나, 3월에는 신학기 납입금 등 공공요금이 1.4% 상승하고 저장농산물 출하 부족으로 0.6% 올라 2월 대비 0.2% 상승
 - 1월중에 환율의 안정에 힘입어 등유, 휘발유, 집세 등이 하락하여 농림수산물 가격의 전월 대비 1.3%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변동이 없음.
 - 1월중에 전년동기 대비 집세 2.6%, 개인서비스 0.4% 하락하였으며, 다른 품목의 물가도 상승세가 둔화됨.
 - 2월중에 농림수산물만 전년동기 대비 상승폭이 전월의 7.5%에서 5.4%로 둔화되고, 기타 품목은 크게 상승함. 특히 공업제품은 0.4%에서 13.0%, 서비스 0.5%에서 7.0%로 대폭 상승함.
 - 2월중 소비자물가는 설 수요증가와 저장 농산물의 공급부족으로 양파, 파, 밀감, 감자, 사과, 달걀, 조기 등 농수축산물(3.2%)이 크게 오르고 등유, 휘발유, 집세가 내려 전년동기 대비로는 0.9%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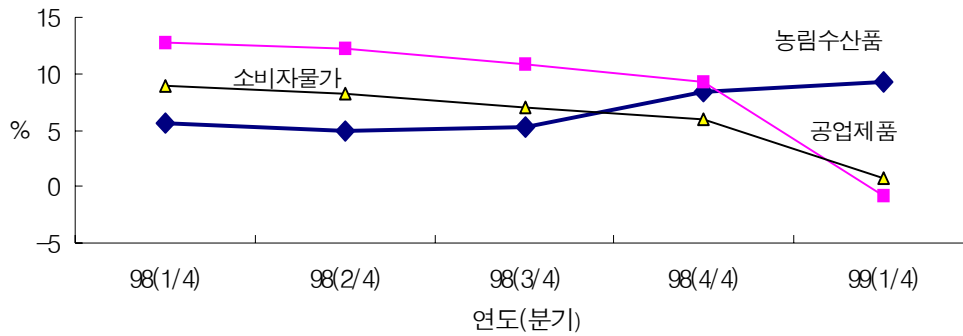
품목별 소비자물가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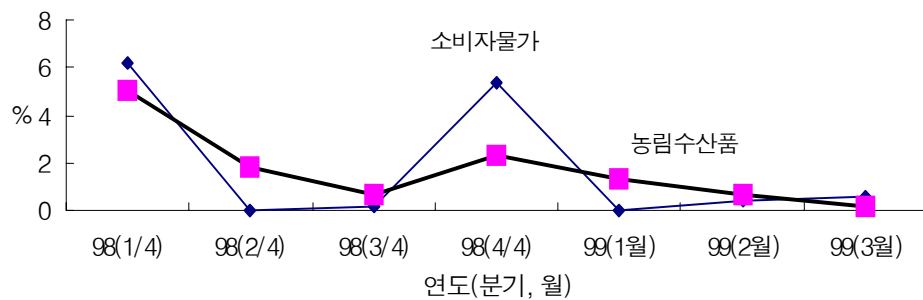
	1998				1999			
	1/4	2/4	3/4	4/4	1월	2월	3월	1/4
상 품	10.8	10.3	9.3	8.6	2.4	10.9	2.1	1.8
농림수산물	5.6	5.0	5.3	8.4	7.5	5.4	10.1	9.2
(전기대비)	(5.0)	(1.8)	(0.7)	(2.3)	(1.3)	(0.7)	(0.6)	(0.9)
공 업 제 품	12.8	12.3	10.9	9.3	0.4	13.0	△0.8	△0.9
서 비 스	7.0	6.0	4.6	3.2	0.5	7.0	△1.1	△0.4
집 세	2.4	1.2	0.0	△1.6	△2.6	2.5	△3.7	△3.2
공공서비스	9.8	10.8	9.5	7.9	4.7	9.2	2.5	3.3
개인서비스	7.8	5.9	4.3	3.1	△0.4	8.0	△1.8	△1.2
전 체	8.9	8.2	7.0	6.0	1.5	0.9	0.5	0.7
(전기대비)	(6.2)	(0.0)	(0.2)	(5.4)	(0.0)	(0.4)	(0.2)	(0.2)

자료: 통계청

품목별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주요품목 소비자물가 변동추이(전분기, 전월대비)



□ 1999. 1월중 수출물가는 전월에 비해 3.5% 하락함.

- 원화환율의 하락과 아시아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과 1차금속제품 등의 가격이 하락
- 수출물가를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작년 1월의 급등에 따른 반사효과로 35.6% 하락

□ 1999. 2월중 수출물가는 전월에 비해 1.6% 하락함.

- 원화환율의 하락, 아시아지역의 수요부진과 세계적인 가격경쟁의 심화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전기기계 및 장치제품 등의 가격 하락
- 농림수산물 수출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2.5% 하락으로 다른 품목의 하락 폭보다 적어 결과적으로 2월중 전월에 비해 1.8% 상승

품목별 수출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998				1999	
	1/4	2/4	3/4	4/4	1월	2월
농림수산물	42.2	24.1	10.6	0.9	△25.7	△22.5
공 산 품	66.3	33.7	24.5	5.8	△35.8	△34.3
원 자 재	59.4	27.8	18.3	1.7	△37.6	△36.0
자 본 재	66.3	31.7	21.5	3.1	△37.4	△36.9
소 비 재	76.2	43.5	34.6	12.7	△32.0	△30.5
전 체	65.9	33.5	24.3	5.7	△35.6	△34.1

자료: 한국은행

- 1999. 1월중 수입물가(원화 기준)는 원화환율의 하향 안정과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29.7%로 크게 하락함
- 1999. 2월중 수입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9.9%(전월대비 2.4%) 감소를 보여 지난 12월 이후의 하락세가 지속됨
 - 전년 동월 환율가치폭락에 따른 고물가에 대한 반사효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데 기인함
 -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으로 계약 통화기준으로 수입물가가 작년 동월에 비해 9% 정도 하락한 수준이 반영됨

품목별 수입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상승률, %

	1998				1999	
	1/4	2/4	3/4	4/4	1월	2월
농림수산물	40.8	24.3	20.2	7.2	△20.7	△27.9
공 산 품	58.3	35.4	26.2	10.4	△27.5	△28.2
원 자 재	55.8	32.7	22.7	4.2	△33.5	△33.5
자 본 재	47.5	30.2	26.4	16.0	△15.0	△16.2
소 비 재	39.7	30.5	27.7	15.6	△15.8	△17.2
전 체	53.7	32.1	23.5	6.7	△29.7	△29.9

자료: 한국은행

3. 소 비

주식과 부동산 시장 회복 및 금리의 하향안정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 관련 지표들이 증가세로 반전됨.

- 최근 소비관련지표의 감소 폭이 1998년 11월 이후 크게 축소됨.
- 4/4분기의 내구재 소비는 3/4분기의 감소세($\Delta 44.3\%$)에 비해 감소세가 현저히 둔화($\Delta 28.5$)됨. 특히 12월중 8.1%의 감소세를 보이다가 1월중에 32.4%의 상승세로 반전하여 소비가 급격히 살아나고 있음.
 - 비내구재 소비도 1월중에 0.4% 감소에 그쳐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내수용 소비재 출하도 1월중에 증가세로 반전되어 7.6% 증가
 - 도소매 판매도 1월중에 자동차 및 소매업의 판매신장으로 2.8% 증가를 보여 작년 12월의 감소세($\Delta 3.6\%$)로부터 증가세로 반전
 -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도소매판매지수와 민간소비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임을 시사
- 소비재수입은 수입수요 감소 및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1998. 4/4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12월중에는 감소세가 급격히 둔화($\Delta 5.5\%$)

소비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1998						1999
	1/4	2/4	3/4	4/4	연간	12월	1월
민간소비	$\Delta 9.9$	$\Delta 11.2$	$\Delta 10.4$	$\Delta 6.9$	$\Delta 9.6$	-	-
내구재	$\Delta 38.5$	$\Delta 47.4$	$\Delta 44.3$	$\Delta 21.5$	$\Delta 28.5$	$\Delta 8.1$	32.4
비내구재	$\Delta 8.2$	$\Delta 9.2$	$\Delta 8.3$	$\Delta 16.9$	$\Delta 17.9$	$\Delta 12.8$	$\Delta 0.4$
서비스	1.9	0.1	0.2	-	-	-	-
정부소비	1.3	$\Delta 0.7$	$\Delta 0.6$	$\Delta 0.4$	$\Delta 0.1$	-	-
도소매판매	$\Delta 11.2$	$\Delta 16.0$	$\Delta 15.1$	$\Delta 8.3$	$\Delta 12.7$	$\Delta 3.6$	2.8
내수용 소비재출하	$\Delta 19.1$	$\Delta 25.4$	$\Delta 22.3$	$\Delta 18.4$	$\Delta 21.4$	$\Delta 11.4$	7.6
(내구소비재)	$\Delta 25.0$	$\Delta 33.7$	$\Delta 32.8$	$\Delta 21.5$	$\Delta 28.5$	$\Delta 8.1$	32.4
소비재수입(명목)	$\Delta 40.6$	$\Delta 41.0$	$\Delta 45.9$	$\Delta 32.2$	$\Delta 39.9$	$\Delta 5.5$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8.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3.8% 감소하여 3/4분기 감소율 14.4%보다 감소 폭이 현저히 둔화됨.
- 배우자와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의 감소가 커져 1997. 4/4분기 가구당 평균 취업인원수가 1.57명에서 1998. 4/4분기에는 1.47명으로 감소
- 전체적인 소비지출은 1998. 4/4분기에 감소폭이 3/4분기의 16.8%에서 4.0%로 크게 둔화되어 소비지출이 회복되고 있음
- 식료품의 감소폭이 현저히 둔화됨($\Delta 20.2\% \rightarrow \Delta 4.0\%$)
 - 주거비 지출은 3/4분기 $\Delta 6.9\%$ 에서 4/4분기 $\Delta 16.2\%$ 로 감소 폭이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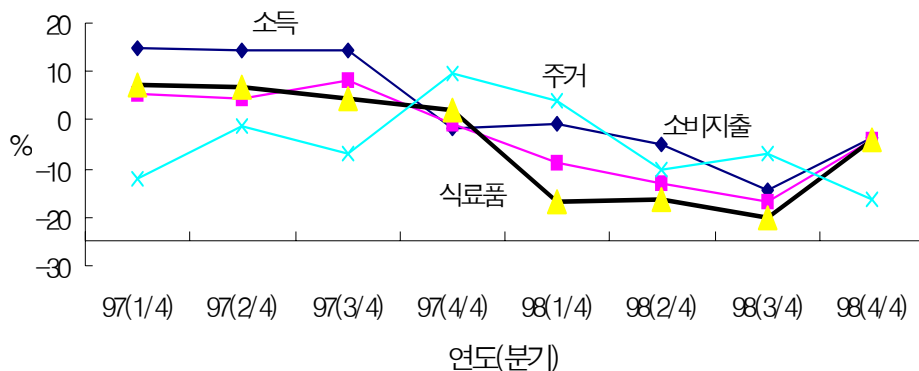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997	1998				연평균
		1/4	2/4	3/4	4/4	
소득	6.3	$\Delta 0.6$	$\Delta 4.8$	$\Delta 14.4$	$\Delta 3.8$	$\Delta 6.7$
소비지출	4.2	$\Delta 8.8$	$\Delta 13.2$	$\Delta 16.8$	$\Delta 4.0$	$\Delta 10.7$
식료품	5.1	$\Delta 17.0$	$\Delta 16.1$	$\Delta 20.2$	$\Delta 4.0$	$\Delta 14.3$
주거	$\Delta 2.1$	3.9	$\Delta 10.4$	$\Delta 6.9$	$\Delta 16.2$	$\Delta 8.0$

자료: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전년동기대비)



4. 고 용

겨울철을 맞아 건설업 등에서 일거리가 줄어들고 공공근로사업이 1월 중 일시적으로 축소되어 실업자 및 실업률 증가함.

- 1999. 1~2월중의 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음.
 - 실업자는 1,762천명으로 1998년 12월에 비해 97천명이 증가하였으며, 2월중에는 1월보다 23천명 늘어난 1,785천명에 달함.
 - 2월중 실업률은 1998. 1/4분기 이후 최고수준인 8.7%를 보여 전월에 비해 0.2% 상승
 - 이 같은 실업의 증가는 계절적 요인으로써 겨울철을 맞아 건설업 등에서 일거리가 줄고 1월중 공공근로사업이 일시적으로 축소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1999. 1월 취업자수는 18,909천명으로 전월대비 612천명(△3.1%), 전년 동월대비 802천명(△4.1%) 감소함.
 - 1월과 2월중에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어 1월중에는 작년 12월에 비해 35천명이 줄고, 2월중에는 1월보다 50천명이 감소
 - 농림어업은 계절적 요인으로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1998년에는 전반적으로 여자 취업자의 고용 감소 폭이 남자취업자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1999년 1월에는 남자 601천명(△5.1%), 여자 201천명(△2.6%) 감소하여 남자취업자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남.
 - 1월중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10.1%), 제조업(△8.9%), SOC 및 기타(△1.7%) 등의 분야에서 감소
- 1999. 1월중 경제활동인구는 20,671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천명(0.1%)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참여율은 58.3%로 전년동월(58.9%)보다 0.6% 감소함.

- 1999. 2월중 경제활동인구는 20,562천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98천명(△0.1%) 감소하였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55.7%로 전년동월(59.2%)보다 3.5% 감소함.

고용 활동

단위: 천명, %

	1997	1998	1999		전년동월대비	
			1월	2월	1월	2월
경제활동인구	21,604	21,390	20,671	20,562	26	△198
(경제활동참가율)	(62.2)	(60.7)	(58.3)	(55.7)	(△0.6)	(△3.5)
취업자	21,048	19,926	18,909	18,777	△8.2	△749
·농림어업	2,324	2,424	1,668	1,666	△190	△309
·광공업	4,501	3,904	3,842	3,792	△377	△281
(제조업)	(4,475)	(3,884)	(3,823)	(3,773)	(△373)	(△280)
·사회간접자본·기타서비스	14,223	13,598	13,399	13,320	△238	△158
(건설업)	(2,004)	(1,577)	(1,271)	(1,213)	(△490)	(△412)
실업자	556	1,463	1,762	1,785	828	550
실업률(계절조정)	2.6	6.8	8.5	8.7	4.0	2.8

자료: 재정경제부

(이규천 작성)

IV. 농촌경제 동향

1. 농촌물가

최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998. 11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998. 2월을 정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약보합세를 나타냄.

- 1999년 2월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서류, 과실류, 계란 및 화훼류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동월 대비 8.1% 상승, 전월대비로는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곡물·서류는 일반미, 보리 및 서류의 가격상승으로 전년동월 대비 7.8% 상승, 전월대비 0.3% 상승
- 특히 쌀은 1999. 2월에 전년동월 대비 7.3% 상승, 전월대비로는 0.2% 상승
- 청과물은 양배추, 미나리, 부추, 파, 호박 등 채소류의 상승과 사과, 감귤 등 과실류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8.1% 상승, 전월대비 4.1% 상승
- 축산물은 돼지가격의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우 성우(암소), 한우 및 젓소 송아지, 닭과 계란 등의 가격상승으로 전년동월 대비 6.5% 상승, 전월대비 1.3% 상승
- 기타농산물은 특용작물인 표고버섯의 급등과 각급 학교의 졸업철에 따른 장미, 백합, 거베라 등 화훼류의 상승으로 전년동월 대비 16.7% 상승, 전월대비 1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농가판매가격지수의 변화

	가중치	1998. 2	1999. 1	1999.2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총 지 수	1000.0	101.4	107.1	109.6	8.1	2.3
곡물·서류	323.3	116.9	125.6	126.0	7.8	0.3
미 곡	288.7	118.2	126.5	126.8	7.3	0.2
맥 류	13.6	100.0	105.5	105.5	5.5	0.0
잡 곡	3.7	110.5	115.2	115.2	4.3	0.0
두 류	7.8	103.7	123.4	123.6	19.2	0.2
서 류	9.5	115.8	132.4	137.7	18.9	4.0
청 과 물	296.6	100.5	104.3	108.6	8.1	4.1
채 소	165.2	103.7	102.1	105.2	1.4	3.0
과 실	87.0	92.9	109.5	116.8	25.7	6.7
축 산 물	322.3	85.6	90.0	91.2	6.5	1.3
가 축	294.7	82.1	86.8	87.7	6.8	1.0
유 란	27.6	122.5	123.8	129.0	5.3	4.2
기 타 농 산 물	57.8	107.2	113.4	125.1	16.7	10.3
특용작물	48.8	108.6	110.8	119.2	9.8	7.6
화 훼	6.7	98.6	135.1	174.8	77.3	29.4
부 산 물	2.3	103.7	106.3	106.3	2.5	0.0

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995=100.0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 1999. 2월중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농업용품 및 농촌임료금 등 농업투입재 가격의 안정과 가계용품의 하락으로 전년동월 대비 1.9% 하락, 전월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농가구입품목에 있어서 1999. 2월의 가계용품가격은 식료품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광열비 및 피복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등의 안정으로 전년동월 대비 1.7%하락, 전월대비 0.5%의 소폭 상승한데 그쳐 보험세를 나타냄.

- 1999. 2월 농업용품가격은 가축류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사료류, 영농광열비, 영농자재비의 하락과 종자류 및 농기구 가격의 안정으로 전년동월대비 1.7% 하락, 전월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임료금은 1998. 3월 이후 소폭의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보험세를 나타내고 있음.

농가구입가격지수의 변화

	가중치	1998.2	1999.1	1999.2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총 지 수	1000.0	120.0	117.0	117.7	△1.9	0.6
가 계 용 품	524.9	120.9	118.2	118.8	△1.7	0.5
식 료 품	97.6	112.8	117.2	119.7	6.1	2.1
피 복 비	39.1	111.9	112.2	112.2	0.3	0.0
주 거 비	48.7	99.1	98.1	99.1	0.0	1.0
가 계 광 열	35.6	203.4	142.4	142.4	△30.0	0.0
보 건 의 료	69.8	118.1	120.7	120.6	2.1	△0.1
교육교양오락	121.5	120.2	121.4	121.4	1.0	0.0
교 통 통 신	76.5	117.9	117.2	117.1	△0.7	△0.1
기 타 잡 비	36.1	114.9	117.8	117.6	2.3	△0.2
농 업 용 품	403.7	120.4	117.3	118.3	△1.7	0.9
종 자 류	17.4	100.6	100.7	100.7	0.1	0.0
비 료 류	24.3	149.7	149.6	149.6	△0.1	0.0
농 약 류	24.6	109.1	135.5	130.3	19.4	△3.8
농 기 구	83.6	153.4	153.7	153.7	0.2	0.0
영 농 광 열	13.9	241.3	124.9	124.9	△48.2	0.0
가 축 류	129.9	67.2	88.7	94.3	40.3	6.3
사 료 류	77.7	146.7	115.7	113.1	△22.9	△2.2
영 농 자 재	32.3	131.5	109.6	109.5	△16.7	△0.1
농 촌 임 료 금	71.4	111.5	106.9	106.9	△4.1	0.0
농 업 노 임	31.7	118.3	108.4	108.4	△8.4	0.0
기 타 임 금	2.8	109.0	98.8	98.8	△9.4	0.0
도 정 료	8.2	109.1	110.1	110.1	0.9	0.0
농기계 임차	28.7	104.8	105.2	105.2	0.4	0.0

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995=100.0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2. 농가교역조건

농가교역조건은 1998년 상반기부터 농가구입가격지수가 하락세로 반전되고 또한 하반기부터는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998. 11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구입가격지수는 1998. 2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어 농가교역조건은 '98년 말부터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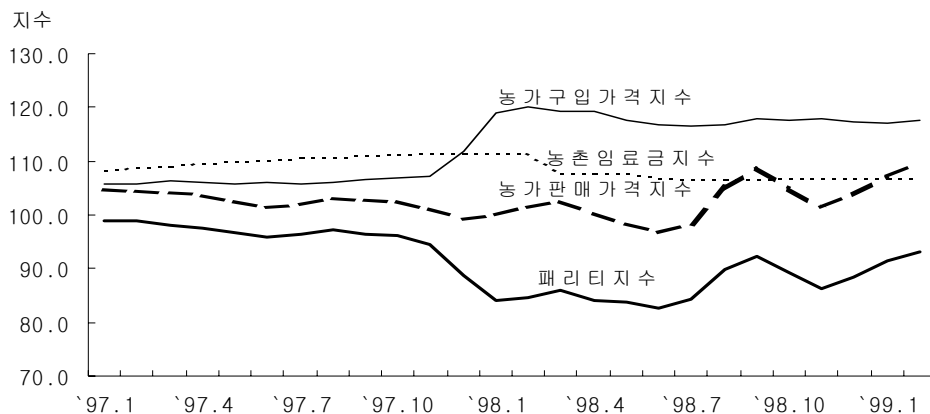
○ 1999. 2월의 패리티 지수는 전년동월 대비로는 10.2% 상승, 전월대비로는 1.7% 상승하여 농가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농가교역조건의 변화

	1998.2	1999.1	1999.2	등락률(%)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101.4	107.1	109.6	8.1	2.3
농가구입가격지수(B)	120.0	117.0	117.7	△1.9	0.6
패리티지수(A/B*100)	84.5	91.5	93.1	10.2	1.7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촌물가지수의 변동추이



3. 농업인력

농림업 취업자수는 1998년 5월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귀농가구는 1998년 4월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1999년 2월 귀농가구수는 전년동기대비로는 증가세를 나타냄

- 농림업부문의 취업자는 1998년 5월을 정점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공공 근로사업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 1999년 2월 농림업 취업자수는 158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1% 감소, 전월대비로는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업 취업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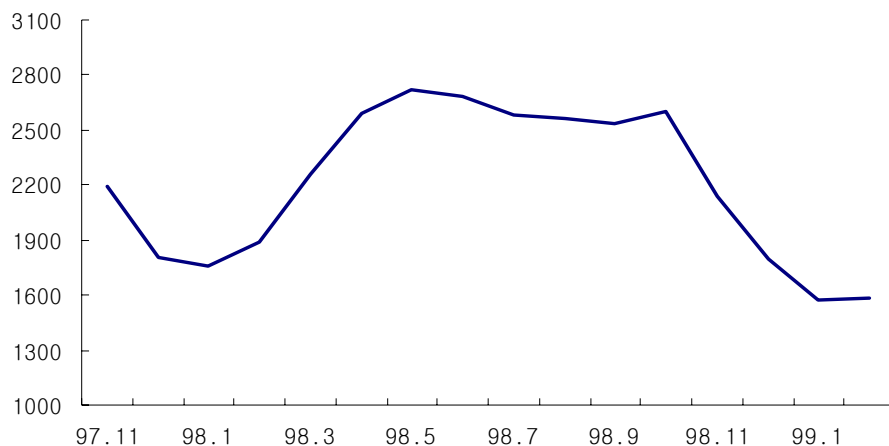
단위: 천명

	1997	1998		1999		증감률(%)	
		연중	2월	1월	2월	전년동기비	전월대비
경제활동인구	21,604	21,390	20,760	20,671	20,562	△1.0	△0.5
전산업취업자	21,048	19,926	19,526	18,909	18,777	0.7	△3.8
농림업취업자	2,215	2,343	1,889	1,574	1,585	△19.1	0.7

자료: 통계청

농림업 취업자 변동 추이

취업자수(천명)



□ IMF 관리체제 이후 도시실업 증가로 귀농가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8년 4월 1,429호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제조업 분야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1999년 2월의 귀농가구수는 446호로 전년동월 대비 16.4% 증가, 전월대비로는 2.3% 증가함.

○ 귀농은 대부분이 젊은 계층 위주이고(1998년의 경우 30대 이하가 전체 귀농가구의 63% 차지), 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쌀 농사 등 경종작물(62%)을 선택하고 있고, 다음으로 원예(11%), 축산(9%), 과수(8%), 기타(1%) 순으로 나타남.

- 귀농가구에게는 1가구당 2,000만원 한도로 영농창업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1999년에 350억원이 할당되어 3월말까지 200억원이 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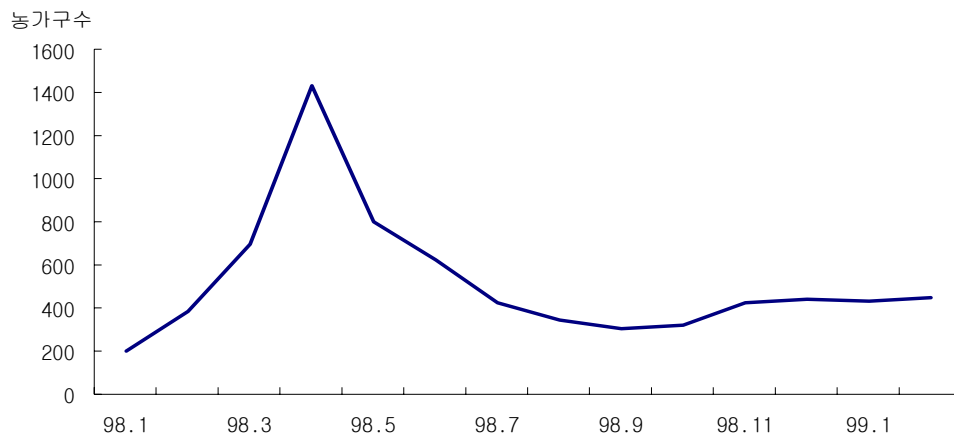
귀농가구 동향

단위: 호

	1997	1998		1999		증감률(%)	
		년간	2월	1월	2월	전년동기대비	전월대비
귀농가구수	1,841	6,409	383	436	446	16.4	2.3

자료: 농림부 농촌인력과

귀농가구의 변동 추이



(김창길 작성)

4. 농업금융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점차 하향안정 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농업금융 여건도 빠르게 호전되고 있음. 특히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에 따른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농·축협외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 등의 조치로 인하여 농업경영의 자금난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추진내용(농림부, '98.11)
 -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
 - 1998.10.1~'99.12.31 기간중 상환이 도래하는 생산성 중장기 정책자금의 원리금을 2년간 상환연기
 - 연기되는 원리금은 연리 6.5%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
 - 부실경영체 정리 지원
 - 정책자금 대출잔액 5억원 이상인 부실경영체의 타인 인수시에 필요한 인수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한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회생자금 지원
 - 상호금융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 연기
 - 농·축협 등에서 기대출된 농가의 상호금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를 2% 포인트 수준 인하(협동조합 책임하에 자율적 추진)
 - '99.12.31까지 상환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2년간 상환 연기
- 농림부는 1999.1.1부터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0% 포인트 인하
 - 대상자금 : 농특회계 융자금 중 금리가 6.5% 이상인 자금, 재해복구자금 및 농가부채대책자금(4.5% 이하 금리는 현행유지)
 - 인하율 : 현행 6.5% → 변경 5.5%, 현행 9.5% → 변경 8.5%
 - 시행시기 : '99.1.1부터(부채대책자금은 '98.12.14부터)
- 농협은 1999.4.10부터 총 4조원 규모의 농업인 우대 저리자금을 융자
 - 지원대상 : 농업인(법인 제외)
 - 지원액 및 조건 : 농가당 300만원 이내, 연리 9.75%, 1년 상환
 - 대출기간 : '99.4.10~9.30

- 농업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연대보증 문제를 해소
 - 「농신보 특례규정」을 제정하여 부채대책 대출금 1억원까지는 간이신용조사 및 무입보로 농신보에 의해 신용보증 추진
- 농가부채 후속보완대책 수립(농림부, '99.2.22)
 - 부채보완대책으로 '99.3부터 특별경영자금(7,000억원) 지원
 - 부실경영체 정리·인수자금(1,000억원) 지원
-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수립(농림부, '99.2.22)
 - 총 45조원 규모의 투융자계획은 정부 중기재정계획('99~2002)과 연계하여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으로 함.
 - 구체적인 사업별 규모와 실천계획은 4월말까지 확정 예정

농업·농촌투융자계획(1999~2004)

단위: 억원

구 분	총투융자	중앙정부	지방비등
합 계	450,526	378,384	72,142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확충	150,055	131,776	18,279
농업경영체 육성	74,822	62,633	12,189
농림업의 부가가치 제고	24,038	21,059	2,979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93,750	77,276	16,474
지역개발과 복지확충	77,912	55,691	22,221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29,949	29,949	-

자료: 농림부 농업정책과

- 농업경영조합자금제도 시범사업 실시
 - 현재의 개별사업별 자금지원방식을 수요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발전단계에 맞추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99년 4월부터 축산, 시설원예 분야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0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

(김정호 작성)

5. 농산물 수출입

1998년 하반기부터 대일 수출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기타지역은 수출단가 상승 및 가공식품의 대러시아 수출 부진으로 '99년 1~2월 수출총액은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함. 작년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37.6%의 사상최대 감소율을 기록했으나, 새해 들어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설날 등 계절 요인이 가세하여 수입 수요가 증가하였음.

5.1. 수출동향

- 1999. 2월은 수출단가 인상 및 가공식품의 대 러시아 수출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한 419백만불에 머물렀음.
- 물량 : 15.0% 감소 ('98.2 : 326.4천톤)
 - 금액 : 6.4% 감소 ('98.2 : 447.5백만불)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톤, 백만불

구 분	1997	1998	1998. 2월		1999. 2월		증감율 (%)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림수산물	3,339.5	3,047.1	326.4	447.5	277.5	419.0	△15.0	△ 6.4
농림산물	1,846.9	1,635.4	201.1	225.5	202.3	228.1	0.6	1.2
농축산물	1,507.8	1,390.9	177.5	204.6	173.1	206.8	△ 2.5	1.1
- 농산물	1,190.0	1,005.6	154.5	152.7	146.8	140.1	△ 5.0	△ 8.3
- 축산물	317.8	385.3	23.0	51.9	26.3	66.7	14.6	28.5
임 산 물	245.4	292.0	35.0	29.1	30.0	26.4	△14.3	△9.3
수 산 물	1,492.6	1,364.1	113.9	213.8	68.8	185.8	△39.6	△13.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월별 수출증감 추이

- 1월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9.1% 증가하였으나, 2월중에는 원화가치 상승 및 구정연휴 등의 영향으로 12.5% 감소
- 수출증가율 : ('99.1월) 19.1%, (2월) △12.5

□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 돼지고기 : 주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수출량 34.5%, 수출액 45.3% 증가
- 채소류 : 딸기, 토마토, 고추, 오이 등 신선채소류의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
- 김 치 : 최대수출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전년동기 대비 83.2% 증가
- 화훼류 : 선인장은 미국·유럽지역 수출이 호조를 띠고 있으며, 장미는 일본지역에 꾸준히 증가추세 (47.8% 증가)
- 인삼류 : 백삼정의 수출은 호조를 띠고 있으나, 홍삼·백삼 수출은 다소 부진 (24.2% 감소)
- 과실류 : 대만과의 교역중단 및 동남아지역의 수입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 (31.8% 감소)
- 가공식품(라면, 과자류 등) : 주수출국인 러시아·동남아지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감소로 수출 크게 감소
 - 라면 $\Delta 41.0\%$, 과자류 $\Delta 20.5\%$, 커피조제품 $\Delta 20.5\%$
- 수산물 : 원양어획량 감소로 참치, 냉동오징어의 수출이 부진해 전년 동기대비 13.1% 감소한 185.8백만불에 머물렀음.

5.2. 수입동향

□ 소비심리 회복으로 육류(쇠고기, 돈육)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설 특수를 겨냥한 조기류 및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한 명태, 오징어, 아귀 등의 수입이 급증해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1,207.9백만불을 기록했다.

- 물 량 : 4.5% 증가 ('98.2 : 4,378.7천톤)
- 금 액 : 4.1% 증가 ('98.2 : 1,160.5백만불)

□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 곡물류 : 전년동기 대비 21.4% 감소한 245백만\$ 수입
 -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3.5%, 수입액은 21.6% 감소
 - 수입량 : ('98.1~2월) 1,269 → ('99.1~2월) 1,225천톤($\Delta 3.5\%$)

- 수입액 : ('98.1~2월) 173 → ('99.1~2월) 135백만\$(Δ 21.6%)
- 밀은 국내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입감소
 - 수입량 : ('98.1~2월) 684 → ('99.1~2월) 559천톤(Δ 18.2%)
 - 수입액 : ('98.1~2월) 113 → ('99.1~2월) 69백만\$(Δ 38.5%)
- 대두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6.5%, 수입액은 36.7% 감소
 - 수입량 : ('98.1~2월) 183 → ('99.1~2월) 153천톤(Δ 16.5%)
 - 수입액 : ('98.1~2월) 56 → ('99.1~2월) 36백만\$(Δ 36.7%)
- 축산물 : 전년동기대비 48.9% 증가한 146백만\$ 수입
 - 쇠 고 기 : ('98.1~2월) 35 → ('99.1~2월) 54백만\$(52.5%)
 - 돼지고기 : ('98.1~2월) 7 → ('99.1~2월) 26백만\$(275.1%)
- 과실류 :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실을 중심으로 증가
 - 오 렌 지 : ('98.1~2월) 8 → ('99.1~2월) 14백만\$(73.4%)
 - 바 나 나 : ('98.1~2월) 3 → ('99.1~2월) 10백만\$(308.9%)
 - 파인애플 : ('98.1~2월) 1 → ('99.1~2월) 3백만\$(138.6%)

농림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톤, 백만불

구 분	1997	1998	1998. 2월		1999. 2월		증감율 (%)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림수산물	11,248.3	7,021.2	4,378.7	1,160.5	4,573.9	1,207.9	4.5	4.1
농림산물	10,202.9	6,438.7	4,343.3	1,091.0	4,476.9	1,040.7	3.1	Δ 4.6
농축산물	7,619.0	5,423.5	3,487.2	900.6	3,345.9	845.0	Δ 4.1	Δ 6.2
- 농산물	6,336.0	4,696.6	3,445.3	802.4	3,270.6	698.8	Δ 5.1	Δ 12.9
- 축산물	1,283.0	726.9	41.9	98.2	75.3	146.2	79.8	48.9
임 산 물	2,583.8	1,015.2	856.1	190.4	1,131.0	195.7	Δ 14.3	Δ 9.3
수 산 물	1,045.5	582.5	35.4	69.5	97.0	167.2	174.3	140.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김정호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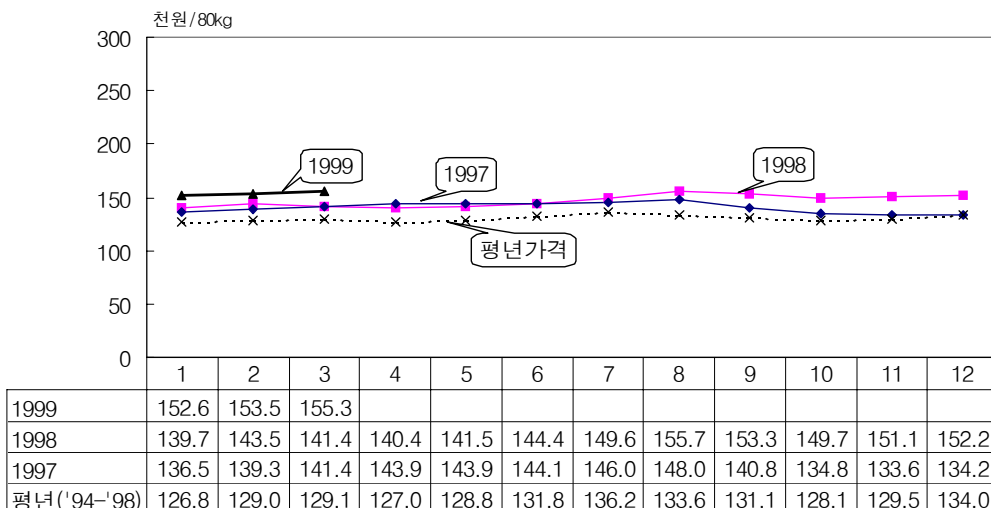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쌀

- 금년 1~2월의 1인 1일당 쌀 소비량은 273g으로, 이는 작년 1/4분기보다 0.7% 줄어든 것임.
- 1999 양곡년도의 쌀 총소비량은 516만톤(식용 463, 가공용 12, 기타 41)으로 추정되며, 총공급량은 이월량 81만톤, 생산량 510만톤, MMA 수입량 19만톤등 총 610만톤임. 양곡년도말 재고량은 94만톤(소비량의 18%)으로서 적정 재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작년 수확기 이후 쌀 가격은 약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1/4분기의 쌀 도매가격은 80kg당 15만 4천원(호남미, 상품 기준)으로 4/4분기보다 2%, 작년 1/4분기보다는 9% 높은 수준임.
- 금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105만 3천ha로 작년 재배면적보다 약 3천ha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농림부, 3월 15일 조사치).

쌀 도매가격 동향 (호남미, 상품 기준)



자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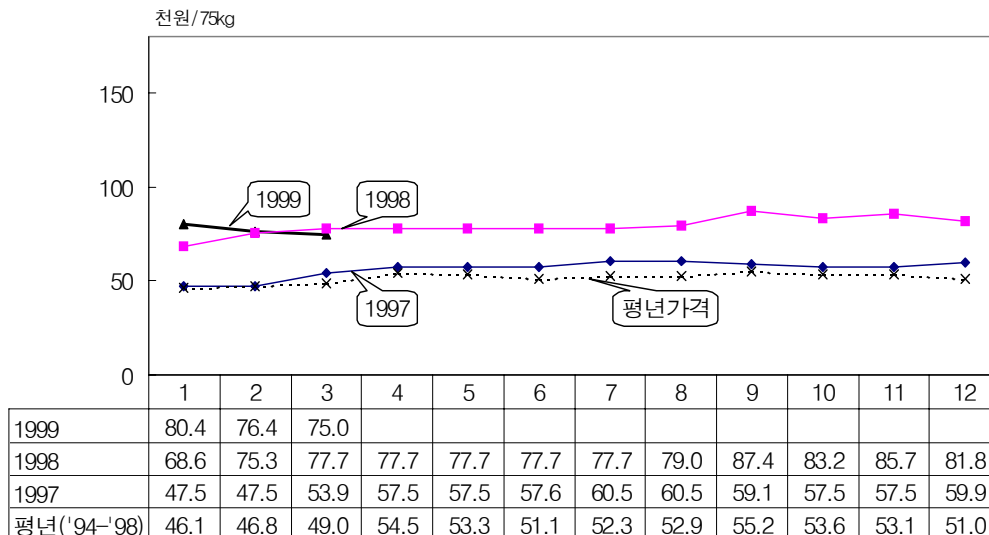
보 리

- 보리 소비량의 약 57%를 점하는 맥주용 맥주맥 수요는 '97년말 경기 침체 이후 줄어들어 금년 1/4분기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음. 금년 1~2월의 1인 1일당 보리의 식용 소비량은 3.8g으로, 작년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임.

- 작년 보리 생산량은 18만 4천톤으로 2년 연속 흉작이었음. 이에 따라 작년 수입량은 14만 3천톤으로 '97년보다 약 10% 증가함. 금년 1~2월의 수입량은 3만 5천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60% 이상 증가함.

- 작년 9월 이후 보리 가격은 하락추세에 있음. 1/4분기의 보리 도매가격은 75kg당 7만 7천원(쌀보리, 상품 기준)으로, 이는 4/4분기보다 7.5% 낮고, 작년 1/4분기보다는 4.6% 높은 수준임.

보리 도매가격 동향 (쌀보리,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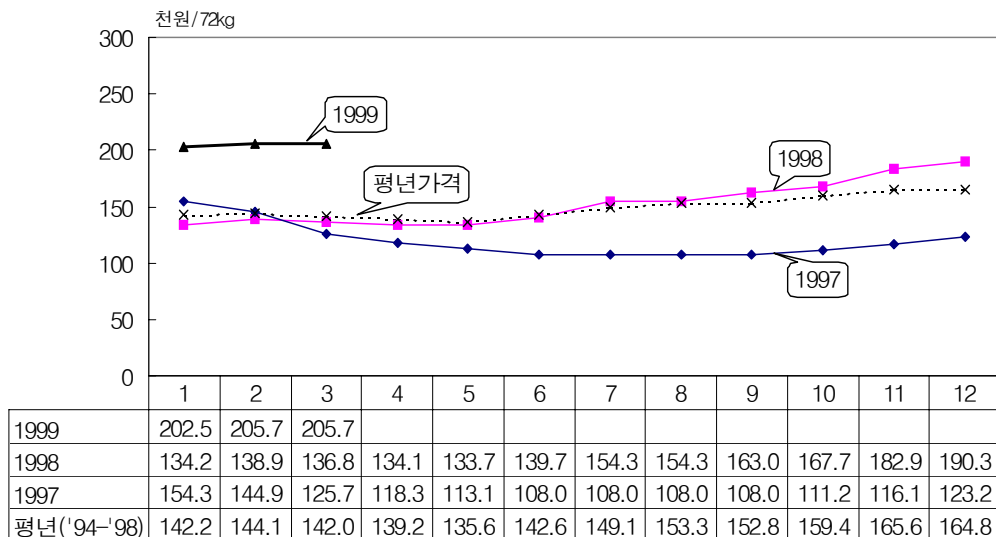


자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대 두

- 대두 소비량의 약 76%를 점하는 착유용 대두 수요는 작년에 대폭 감소하였으나, 금년 1/4분기에는 '97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금년 1~2월의 1인 1일당 두류의 식용 소비량은 10.3g으로, 작년보다 약간 하락함.
- 작년 대두 생산량은 14만톤으로 '97년보다 1만 6천톤이 감소하였으나, 수요 감소로 인하여 수입량은 '97년보다 15만 5천톤이 감소한 141만 3천톤이었음. 금년 1~2월의 수입량은 15만 3천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3만톤 가량 줄어듦.
- 작년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상승하던 대두 가격은 2~3월에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1/4분기 도매가격은 72kg당 20만 5천원(상품 기준)으로 4/4분기보다 14% 높고, 작년 1/4분기보다 50% 높은 수준임.
- 금년 대두 재배의향면적은 9만 7,741ha로 작년 재배면적보다 0.1%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농림부, 3월 15일 조사치).

콩 도매가격 동향 (국산 백태,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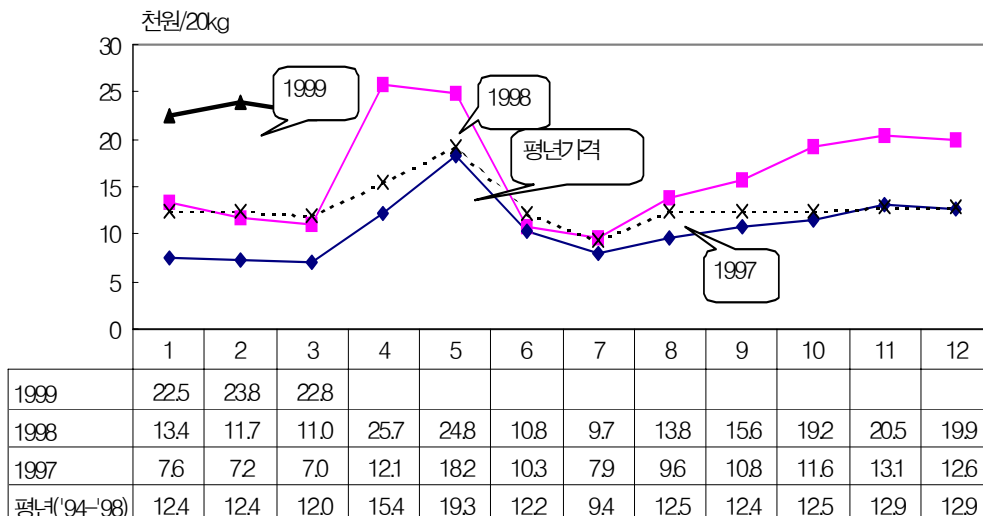


자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감 자

- 작년 감자 재배면적이 12% 줄어든데다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은 '97년보다 약 14% 감소한 55만톤(생서 중량 기준)으로 추정됨.
- 원화 약세에 따라 작년의 감자 수입량은 '97년보다 8,500톤이 줄어든 3만 3,200톤에 그침. 이 같은 공급 부족에 따라 가격은 작년 8월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함.
- 1/4분기 감자 도매가격은 2만 3천원/20kg(슈퍼리어, 상품 기준)으로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4/4분기보다 16%, 작년 1/4분기보다 91% 높은 수준임.

감자 도매가격 동향 (슈퍼리어,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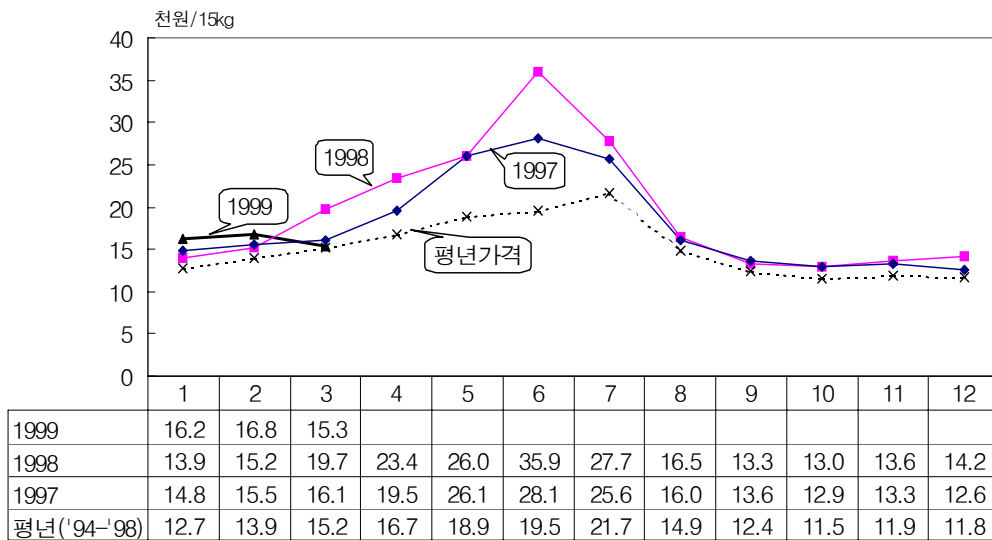


자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고구마

- 작년 고구마 생산량은 33만 9천톤(생서 중량 기준)으로 작황이 나빴던 '97년보다 16% 증가함. 이에 따라 작년 8월부터 가격은 안정됨.
- 1/4분기 고구마 도매가격은 1만 6천원/15kg(상품 기준)이며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4/4분기보다 18% 높으며, 작년 1/4분기보다는 1% 낮은 수준임.

고구마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4~98년의 평균임.

자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료곡물

- 전적으로 수입 곡물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용 곡물 소비량은 '9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됨. '96년에 약 890만톤으로 정점을 이룬 사료곡물 수입량은 작년에는 770만톤으로 줄어들었으며, 금년 1~2월에는 122만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줄어듦.
- 사료 곡물의 주요 수입국인 동남아시아와 주요 수출국인 남미의 경기 침체로 국제 곡물가격은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음. 사료용 옥수수의 1~2월 수입가격은 110 U.S.\$/톤으로 작년 평균가격보다 15\$ 낮으며, 사료용 밀의 경우는 작년보다 22\$ 낮은 93\$임.

사료용 곡물 수입 실적

		단위	1995	1996	1997	1998	1999.1~2
옥수수	수입량	천톤	7,289	6,798	6,524	5,335	924
	단가	US\$/톤	140	179	148	125	110
	수입액	백만US\$	1,018	1,217	965	667	102
밀	수입량	천톤	131	953	1,096	2,349	268
	단가	US\$/톤	137	201	141	115	93
	수입액	백만US\$	18	192	154	271	25
기타	수입량	천톤	966	1,138	101	29	26
	단가	US\$/톤	110	171	143	117	90
	수입액	백만US\$	106	194	14	3	2
계	수입량	천톤	8,386	8,889	7,721	7,713	1,216
	단가	US\$/톤	136	180	147	122	106
	수입액	백만US\$	1,142	1,603	1,133	941	129

자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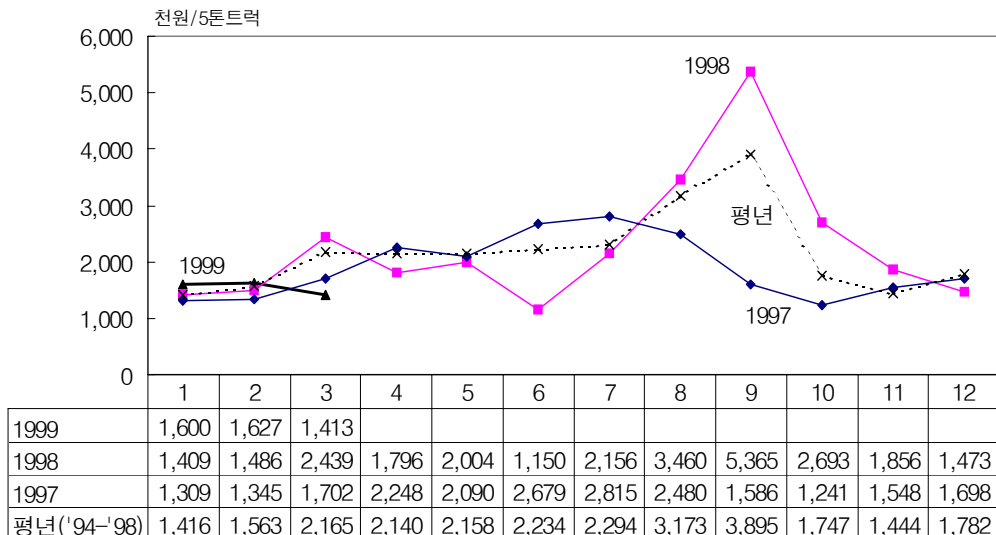
(김명환 작성)

2. 채소류

배추

- 배추 가격은 1~2월에는 평년보다 약간 높았으나, 3월에 월동 배추의 산지출하 대기물량이 예년에 비해 많아 약세로 전환됨. 1/4분기 배추 가격은 5톤 트럭당 154만원(상품 기준)으로 4/4분기보다 23% 하락하였으며, 평년 1/4분기보다는 10% 낮은 수준임.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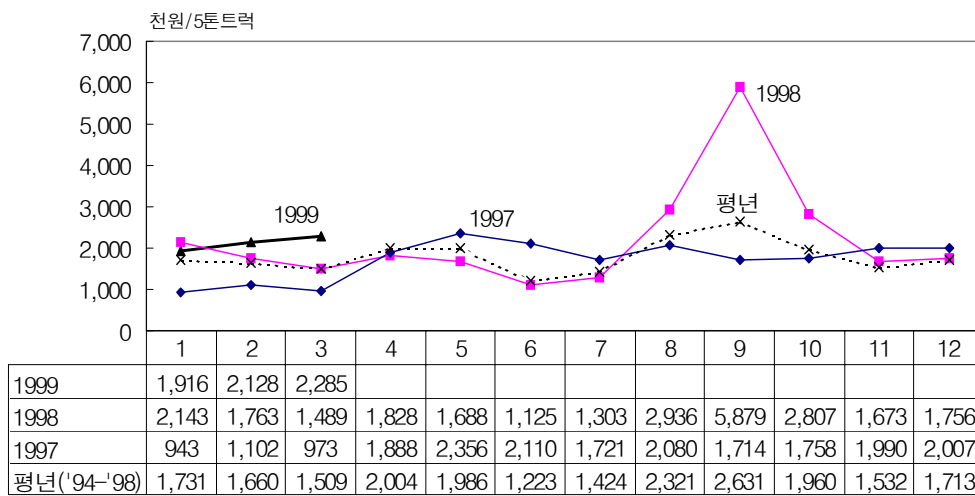
자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 금년 봄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농업관측센터 3월 20일 조사치). 월동 배추가 늦게까지 출하되는데다 재배면적도 증가하여 봄배추 가격은 작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됨.
- 금년 고랭지 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재배면적보다 1.7% 늘어난 9,200ha 정도가 될 것으로 조사됨(농업관측센터 3월 20일 조사치). 지대별로 보면, 해발 700m 이하 준고랭지에서의 재배의향면적은 3.7% 줄고, 해발 700m 이상 고랭지에서는 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무

- 작년산 김장무의 저장중 부패가 많아 1/4분기의 무 가격은 강세를 보임.
1/4분기 무 도매가격은 5톤 트럭당 210만원(상품 기준)으로 4/4분기보다 2% 높고, 평년 1/4분기보다는 29% 높은 수준임.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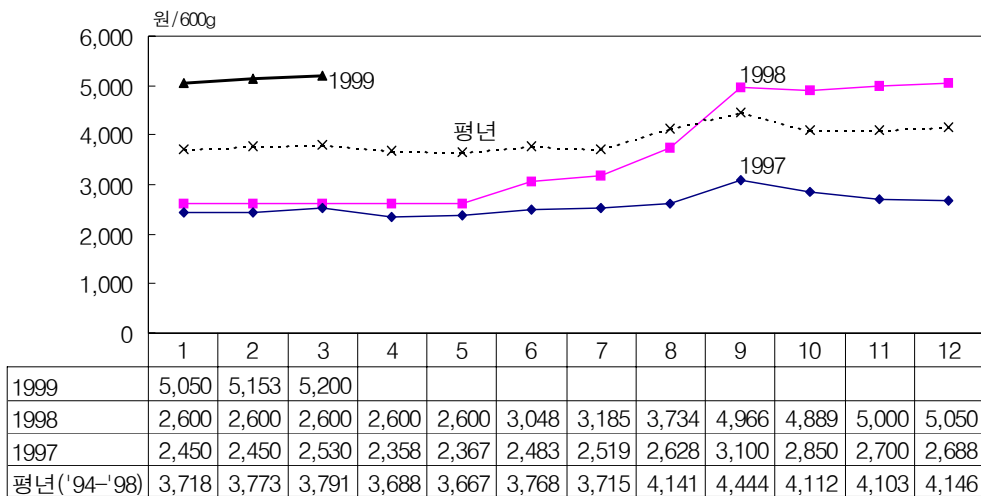
자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 금년 봄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7%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농업 관측센터 3월 20일 조사치).
- 금년 고랭지 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재배면적보다 3.4% 늘어난 3,500~3,600ha가 될 것으로 조사됨(농업관측센터 3월 20일 조사치). 지대별로 보면, 해발 700m 이하 준고랭지에서의 재배의향면적은 2.5% 줄고, 해발 700m 이상 고랭지에서는 7.2% 늘어남.
- 준고랭지에서의 재배의향면적은 전북·경상지역이 늘고, 강원도지역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랭지의 경우는 강원·경상도지역에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고 추

- 고추 가격은 작년 9월까지 급상승한 이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1/4분기 도매가격은 600g당 5,130원(화건, 상품 기준)으로 4/4분기보다 3%, 평년 1/4분기보다는 37% 높은 수준임.

고추 도매가격 동향 (화건,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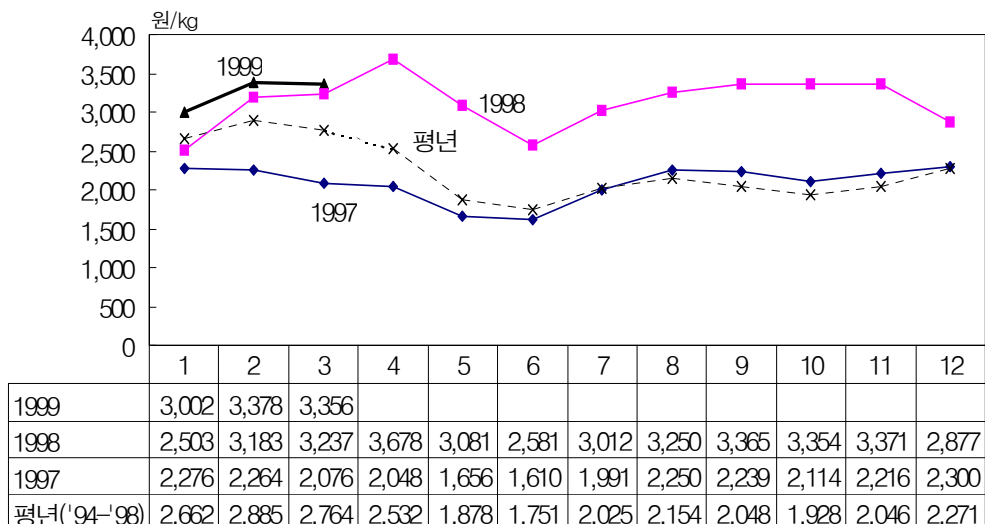
자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 작년 재배면적이 16% 줄어든데다 작황이 나빠 생산량이 '97년보다 27%나 감소한 14만 6천톤이었으나 이월량 2만톤과 4월까지 수입량 1만톤을 합하면 총공급량은 작년 소비량보다 15% 적은 17만 7천톤으로 추정됨. 현재까지 소비는 전년대비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가 수입이 없더라도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다.
- 고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12월 조사(농림부)에서는 전년대비 2.1%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금년 1월 조사에서는 4.2%, 3월 조사에서는 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년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7% 이상 늘어나 7만ha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로 보면 강원, 충청, 전북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수가 최근 추세인 250kg/10a가 된다면 생산량은 작년보다 20% 내외 늘어나지만, 평년 생산량보다는 10% 이상 적을 것으로 전망됨.

마늘

- 마늘 가격은 계속 강세를 보여 1/4분기에는 3,250원/kg(난지, 상품 기준)으로 4/4분기보다 1%, 평년 1/4분기보다는 17% 높은 수준임. 중국산 수입물량이 늘어 3월중 국내산 마늘 가격은 하락하고 있음.
- 최근 환율 1,220원을 적용할 경우, 중국산 마늘의 국내 판매가격은 2,700원/kg 수준이 되므로 앞으로 국내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작년 마늘 생산량은 '97년과 같은 39만 4천톤 수준이었으나 3월까지의 수입량 3만 8천톤, 이월량 3천톤을 포함하면 총공급량은 작년 소비량보다 4% 정도 많은 43만 5천톤이 될 것으로 추정됨. 가격 상승으로 현재까지 소비량이 작년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앞으로 추가 수입이 없더라도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됨.
- 3월 16일 현재 전반적인 생육 상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구비대기인 4월말~5월초가 되어야 단수 예측이 가능함.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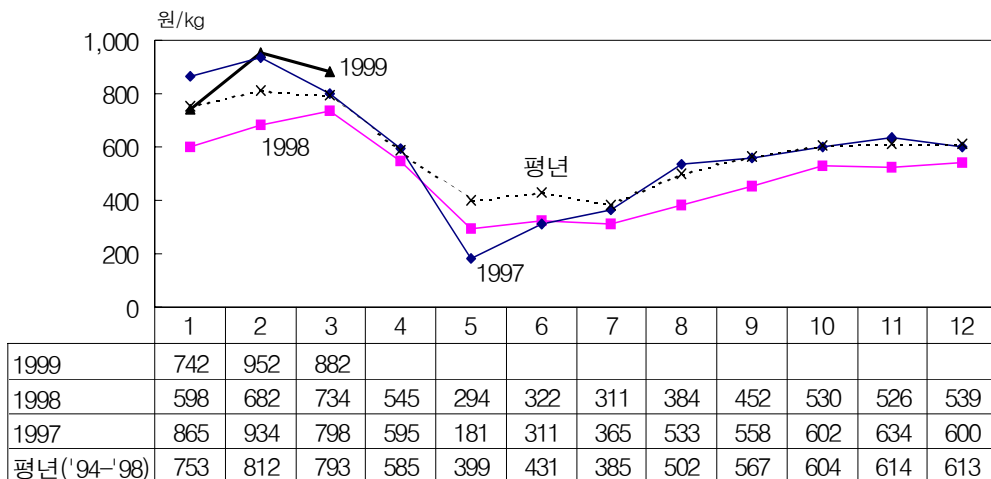


자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양 파

- 양파 도매가격은 작년 수확기 이후에는 평년가격보다 낮았으나, 금년 2월에 950원/kg(상품 기준)까지 상승한 후 3월에는 9% 떨어져 880원 수준임. 이는 평년 3월보다 10% 높고 작년 3월보다는 19% 높은 수준임.
- '98년 생산량이 '97년보다 18% 늘어나 3월까지의 수입량 1만 9천톤을 포함하면 총공급량은 작년 소비량보다 19% 많은 89만 1천톤임. 소비는 작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제주도산의 생산이 늘고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4월 이후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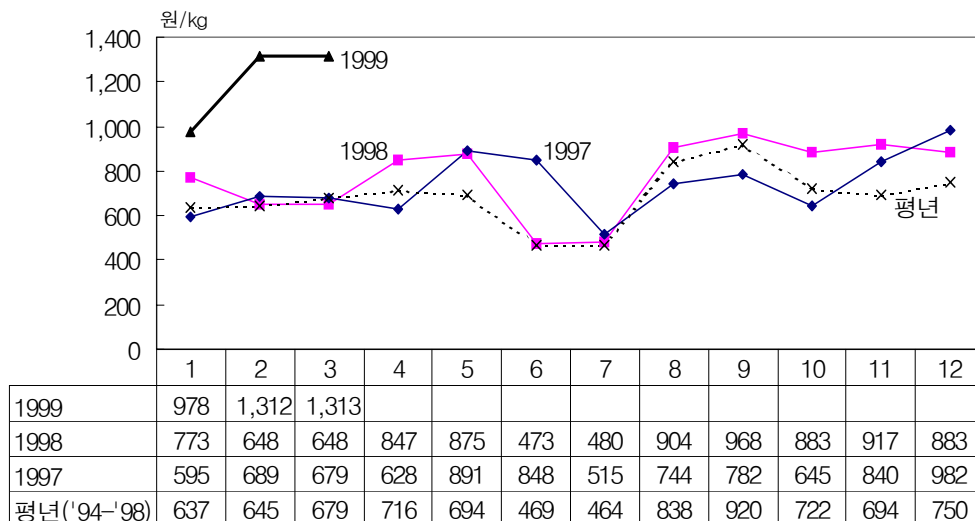
자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 3월 16일 현재 양파의 전반적인 생육 상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구비대기인 4월말~5월초가 되어야 단수 예측이 가능함.
- 4월부터 과중하여 추석 전후에 출하되는 강원도 고랭지 양파의 재배 의향면적을 조사한 결과, 신규 재배농가 수가 많이 늘어난 반면 기존 재배농가 중 재배의향이 없거나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농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식기가 되어야 증감율을 판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주산지인 평창군의 양파 종자 판매량은 작년보다 30% 늘어난 상태로,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대 파

- 작년 경기 북부지역의 장마로 대파의 생산량이 줄었고, 충남 등 중부 지역에서는 작년 가을에 집중 출하되어, 월동 물량이 예년보다 적음.
- 1/4분기 대파 도매가격은 1,200원/kg(상품 기준)으로 4/4분기보다 34% 높고, 평년 1/4분기보다는 84%나 높은 수준임.

대 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자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 대파의 재배의향면적은 가격상승 이전인 1월 15일 조사(농림부)에서는 작년보다 1.0%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가격상승 이후인 2월 25일 조사(농업관측센터)에서는 4.4%, 3월 15일 조사(농림부)에서는 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6% 이상 늘어나 1만 3,600ha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로 강원·전남지역에서 많이 늘고, 충남·경북지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농림부 3월 15일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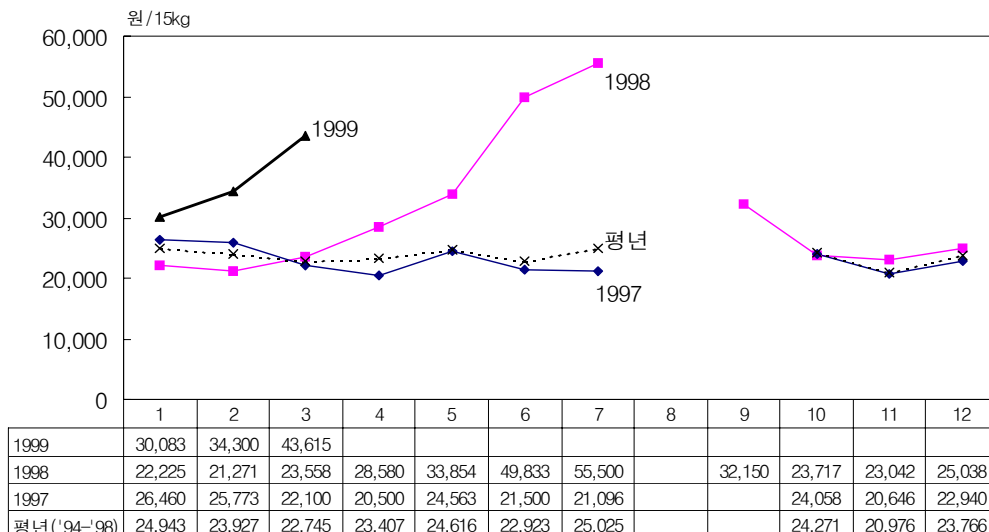
(김명환 작성)

3. 과일류

사과

- 작년 사과 생산량은 '97년보다 30% 감소한 45만 9천톤이었으나, 현재 까지 소비는 작년보다 20% 정도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추정되어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이 계속되고 있음.
- 1/4분기 평균가격은 15kg당 3만 6천원(후지, 상품 기준)으로 4/4분기 보다 50%, 평년 1/4분기보다는 51% 이상 높은 수준임.
- '90년대에 열대과일 수입과 시설 과채류 생산이 늘어나, 사과 재배면 적은 계속 감소하여 왔는데, 작년에도 '97년보다 13% 줄어 3만 4,700ha가 됨.
- 작년과 금년 계속해서 저장 사과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금년에는 재배면적 감소 추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됨.

사과 도매가격 동향 (후지,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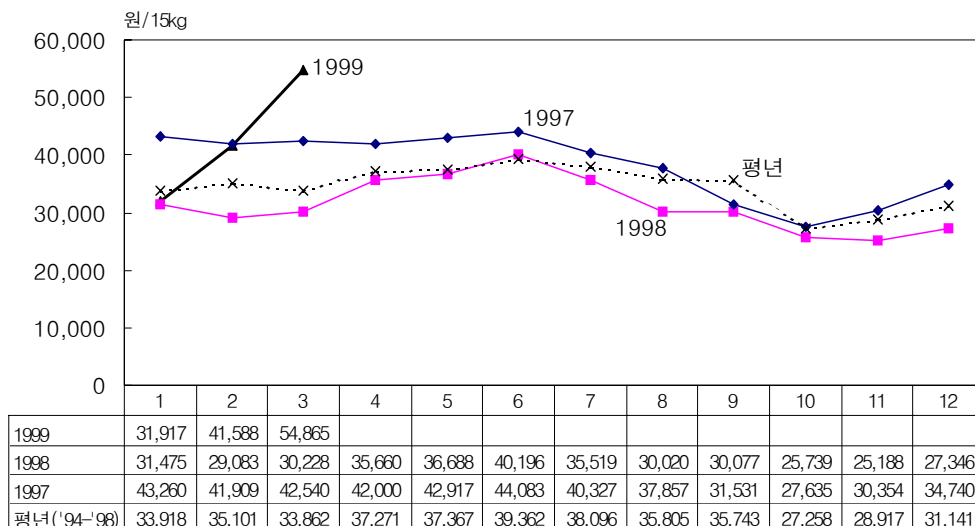


자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배

- 작년의 배 재배면적은 '97년보다 12% 늘어났으나 작황이 나빠 생산량은 '97년 수준인 26만톤이었음. 그러나 수요가 줄어 작년 11월 도매가격은 '97년 11월보다 17% 낮은 2만 5천원/15kg(상품 기준) 수준이었음.
- 작년 말부터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3월에는 작년 11월보다 118% 오른 상자당(15kg) 5만 5천원이 되었음.
- '90년대에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 재배면적이 급증하여 작년 재배면적은 '97년보다 12% 늘어난 2만 5천ha였음.
- '90년대에 유목 식재가 급증하여 앞으로 성목 면적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생산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배 도매가격 동향 (신고,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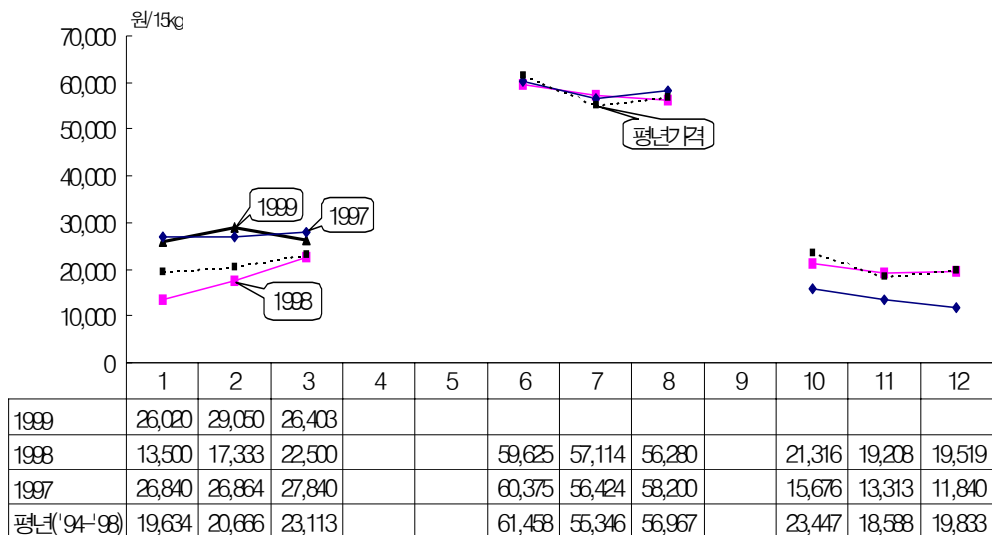


자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감귤

- 작년 감귤 생산량은 해결이에 따른 흉작으로 '97년보다 13만 7천톤이 줄어든 51만 2천톤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작년 4/4분기 도매가격은 '97년 4/4분기보다 47% 높은 2만원/15kg(상품 기준) 수준이었음.
- 금년 1/4분기에도 가격은 강세를 보여 2만 7천원이며, 이는 4/4분기보다 36%, 평년 1/4분기보다 28% 높은 수준임.

감귤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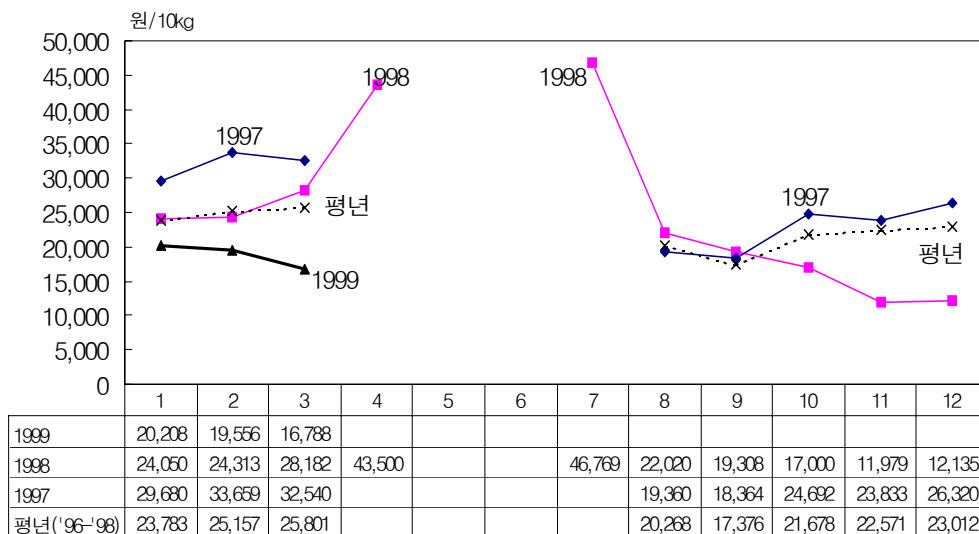
주 : 1~3월, 10~12월은 노지감귤, 6~8월은 하우스감귤임.

자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포도

- 포도 수요가 빠르게 증대하고 가격 수준이 높아 '90년대에 포도 재배 면적은 연평균 9% 증가하여 왔음. 작년 포도 재배면적은 '97년보다 8% 늘어났으나, 단수가 감소하여 생산량은 4% 증가한 39만 8천톤임.
- 1/4분기 도매가격은 저장 포도에 대한 수요가 감퇴하여 10kg당 1만 9천원(상품 기준)으로 작년 1/4분기보다 26%, 평년 1/4분기보다 24% 낮은 수준임.
- 2월말부터 칠레산 포도가 수입되고 있음. 수입 포도의 2월말 도매가격은 상자(8kg)당 4만 7,500원이었으나,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3월말 가격은 3만원으로 떨어졌음. 이는 작년 3월말보다 33% 낮은 수준임.

포도 도매가격 동향 (국산, 상품 기준)



주: 7~12월 가격은 캠벨, 1~4월 가격은 세레단 기준임.

자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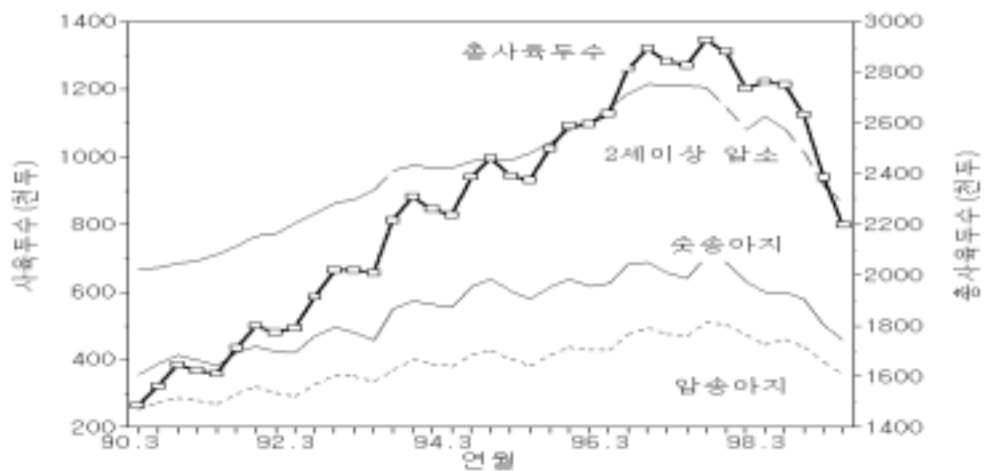
(김명환 작성)

4. 축 산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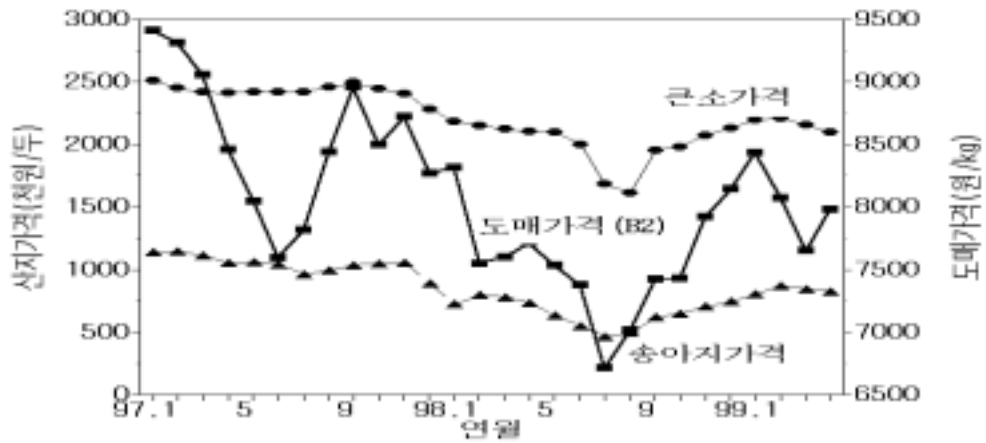
- 한육우 총사육두수는 1999. 3월 2,198천두로, '98년말 대비 185천두(Δ 7.8%), 전년동기 대비 564천두(Δ 20.4%) 감소함.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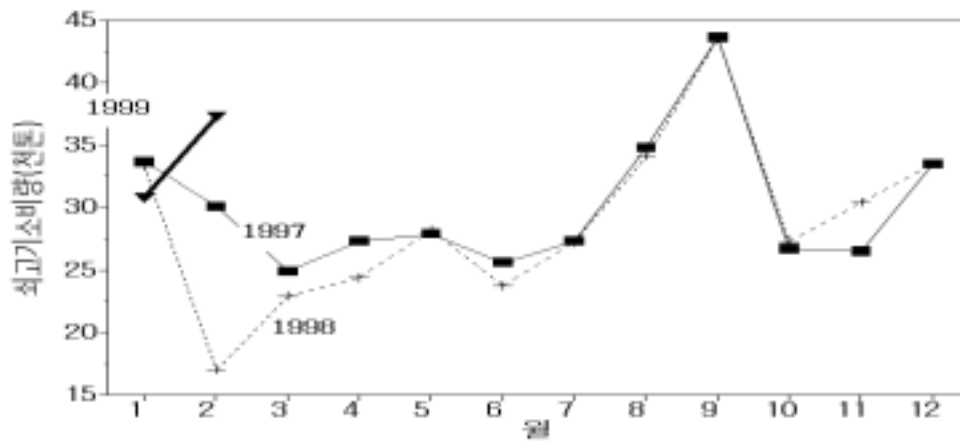
- 한육우 사육두수가 감소한 요인은
- 첫째, 도축물량이 증가하고 가임암소가 크게 감소하여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가임암소두수는 '99년 3월 1,000천두로, '98년말 대비 61천두(Δ 5.7%), 전년동기 대비 268천두(Δ 21.1%) 감소
 - '97년부터 계속된 소값 하락으로 암소도축이 증가하고 인공수정이 감소하였으며, 암소비육으로 가임암소가 부족하여 송아지생산이 크게 감소
 - 송아지두수:('96.12~'97.2) 204천두→('98.12~'99.2) 186(Δ 8.8%감소)
 - 암소도축두수 : ('97.3~5) 92.1천두 → ('98.3~5) 113 (22.7% 증가)
 - 둘째, '98년 9월 이후 산지 소값에 대한 불안 심리와 설날 성수기 국내산 수요증가로 출하물량이 늘어 도축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 큰수소값(천 원/500kg): ('97.12) 2,276→('98.8) 1,612→('98.12) 2,129
→('99.2) 2,207→(99.3) 2,152→(99.4.2) 2,129

쇠고기 월별 소비량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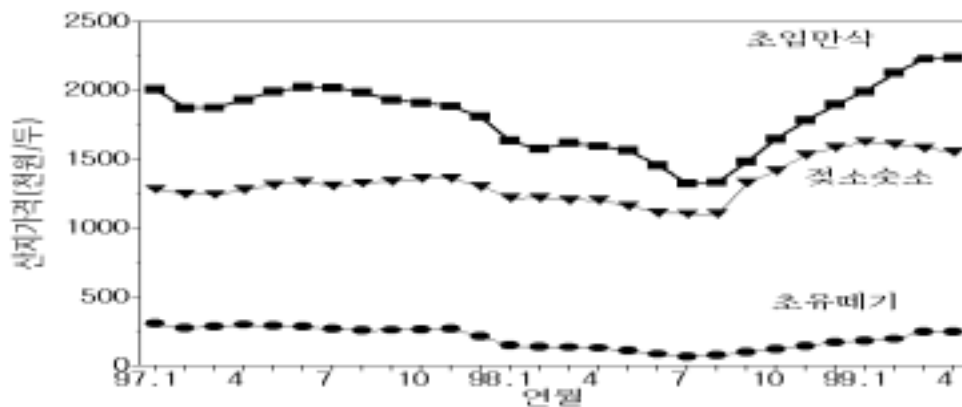


-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 : ('97.12~'98.2) 62.4천톤
→ ('98.12~'99.2) 68.4 (9.6% 증가)
- 셋째, 쇠고기 수입개방 임박, 장기간의 소값 침체 등에 따라 향후 소값에 대한 불안감이 농가의 사육심리 저하로 이어져 사육규모 감축과 소규모 농가의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젖 소

- 젖소 총사육두수는 1999. 3월 533천두로, '98년말 대비 6천두($\Delta 1.1\%$), 전년동기 대비 35천두($\Delta 6.2\%$) 감소함.
- 젖소 사육두수가 감소한 요인은
 - 첫째, 동절기 사양관리비용 부담으로 소규모 농가가 저능력우를 도태하였기 때문임.
 - 가임암소두수는 '98년 3월 383천두, '98년 12월 366천두에서 '99년 3월에는 366천두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전년동기에 비하여 17천두($\Delta 4.4\%$) 감소
 - 둘째, 원유값·분유재고 안정, 송아지값 상승 및 사료값 하락등 경영여건이 호전되었으나 학교방학 등 우유소비 둔화로 일부 농가에서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저능력우를 도태하였기 때문임.

젖소 산지가격 변동



- 암송아지값(초유떼기) : ('97.12) 212천원→('98.3) 133→('98.12) 168
→('99.2) 194 ('99.3) 217
- 초임만삭: ('97.12) 1,805→('98.3) 1,615 →('98.12) 1,894
→('99.3) 2,233.5
- 셋째, 송아지 생산두수 감소가 총사육두수 감소의 원인임.
- 송아지두수는 '98년 12월 38천두였으나 '99년 3월에는 31천두로 18.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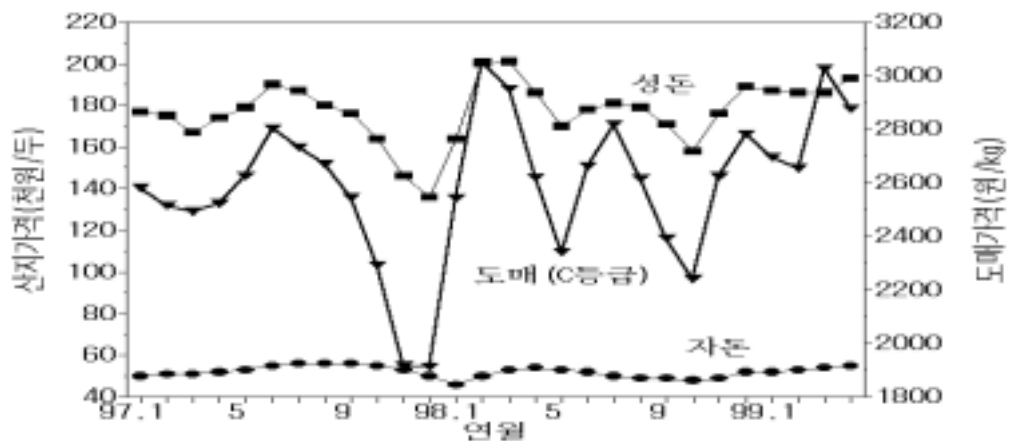
돼 지

□ 돼지 총사육두수는 1999. 3월 7,376천두로, '98년말 대비 168천두(Δ 2.2%), 전년동기 대비 65천두(Δ 0.9%) 감소함.

□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한 요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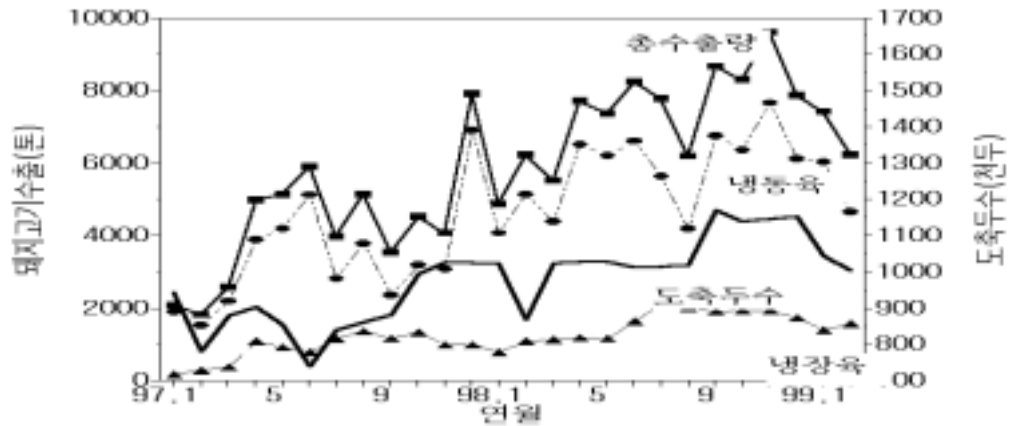
- 첫째, 도축물량 증가와 모돈 감축에 따른 자돈생산 감소로 사육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모돈두수는 '98년 3월 898천두, 12월 843천두에서 '99년 3월 848천두로 '98년말 대비 5천두(0.6%) 증가하였지만, 전년동기에 비하여 50천두(Δ 5.6%) 감소
- 둘째, 돼지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일수출이 호조를 보여 도축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돼지 산지 및 도매가격 변동



- 돼지값(천원/100kg)변동 : ('97.12) 136→('98.3) 201→('98.12) 189
→('99.2) 186→('99.3) 186→('99.4.2) 189

돼지 도축두수 및 수출량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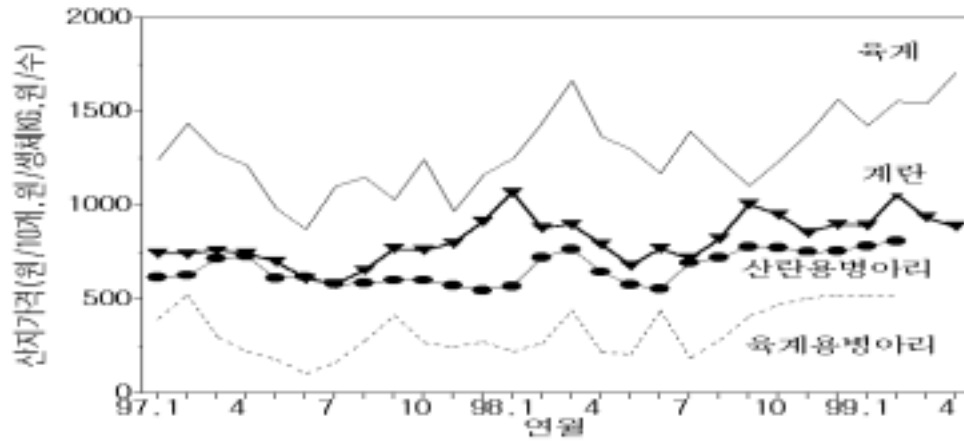


- 도축두수: ('97.12~'98.2) 2,919천두→('98.12~'99.2) 3,203(9.7% 증가)
- 대일수출량: ('97.12~'98.2) 19.0천톤→('98.12~'99.2) 21.5(13.2%증가)

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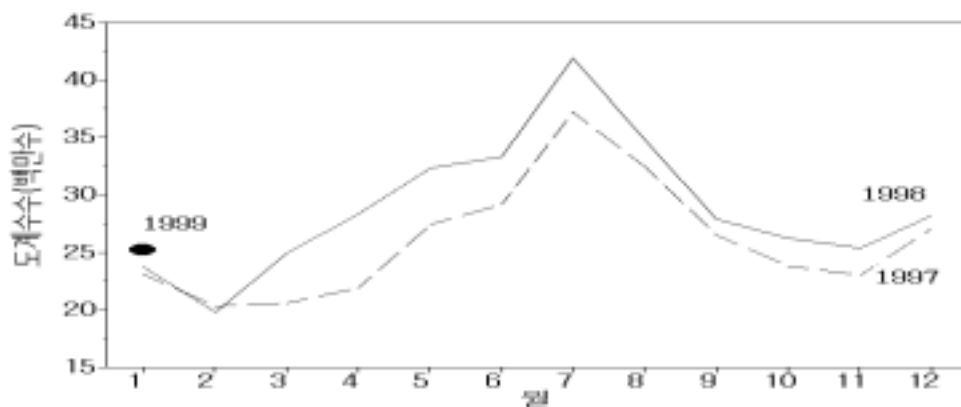
- 닭 사육수수는 1999. 3월 89,806천수로, '98년말 대비 3,959천수(4.6%), 전년동기 대비 3,894천수(4.5%) 증가함.
 - 산란계는 '98년 3월 47,114천수, 12월 5,923천수에서 '99년 3월 47,503천수로, '98년말 대비 1,580천수(3.4%), 전년동기 대비 389천수(0.8%) 증가
 - 육계는 '98년 3월 32,781천수, 12월 34,671천수에서 '99년 3월 36,736천수로, '98년말 대비 2,065천수(6.0%), 전년동기 대비 3,955천수(12.1%) 증가
- 닭 사육수수가 증가한 요인은
 - 첫째, 계란과 육계가격이 안정 또는 강세를 지속하였기 때문임.
 - 계란값(원/10개): ('97.12) 911→('98.3) 895→(9) 1,004→(12) 895
→('99.2) 1,056→('99.3) 936→('99.4.2) 886
 - 육계값(원/kg): ('97.12) 1,152→('98.3) 1,662→(9) 1,101→(12) 1,559
→('99.2) 1,554→('99.3) 1,535 →('99.4.2) 1,70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 둘째, 경영여건이 호전되었기 때문임.
 - 산란계는 계란값의 안정세, 사료값 하락등 경영여건이 호전되면서 노계도태 지연 및 봄 병아리입식 확대로 사육마리수가 증가
 - 육계는 '98.9월 이후 육계값 강세, 사료값 하락등 경영여건 호전과 금년도 경기회복 예상, 4월 이후 행락철 수요대비를 위해 휴업중이던 농가의 신규참여와 함께 2월부터 병아리 입식이 확대됨.
 - 병아리생산: ('97.12~'98.2) 7,392천수→('98.12~'99.2) 8,760(18.5% 증가)
 - 육계용 병아리 입식(1개월령 미만): ('98.3) 24,028천수 → (12) 26,703 →('99.3) 28,082(전분기 대비 5.2% 증가)

월별 도계수수 변동



(허 덕 작성)

VI. 농정 이슈

1997/98년 농업관련 지표의 변화

1. 농업관련 거시지표의 변화

1.1. 경제성장 및 소비지출

- 1997년 12월초 IMF 관리체제 이후 산업별 생산은 내수침체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으로 대부분의 산업생산이 크게 줄었으며, 농업도 수해 영향까지 겹쳐 작물생산이 줄고 민간소비 위축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총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998년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어 전년대비 -10.8% 포인트 줄어든 -5.8%의 성장률 기록.

국내총생산 및 지출의 성장률 변화

	1995	1996	1997	1998 ^P
국내총생산(GDP)	8.9	6.8	5.0	△5.8
농 립 어 업	6.6	3.3	4.6	△6.3
농 업	9.6	4.2	4.2	△6.2
채 배 업	7.9	3.0	4.1	△7.7
축 산 업	20.5	10.4	4.9	1.5
임 업	△8.0	△0.9	2.9	△5.3
어 업	△7.3	△2.4	8.2	△7.6
제 조 업	11.3	6.8	6.6	△7.2
전기가스수도업	7.5	12.0	11.5	△0.5
건 설 업	8.8	6.9	1.4	△9.0
서 비 스 업	9.6	7.8	5.4	△5.4
최 종 소 비 지 출	8.2	7.2	3.2	△8.2
민 간	9.6	7.1	3.5	△9.6
정 부	0.8	8.2	1.5	△0.1

자료: 한국은행

- 농림어업부문의 성장률은 수해의 영향으로 미곡, 과실류, 채소류 등 거의 모든 작물생산이 줄어들고 어업 및 임업의 생산도 크게 부진함으로써 전년도의 성장률 4.6%보다 -10.9%포인트 하락한 -6.8%의 성장률을 나타냄.
- 농업부문중 축산업 성장률만이 양돈업의 성장으로 전년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3.4% 포인트 줄어들어 1.5%의 성장률을 나타냄.

1.2. 농림어업의 산업비중 변화

- 1998년 농림어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9.1% 감소한 22조 588억원으로 추정되며, 산업구조에 있어서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은 전년대비 0.5% 줄어든 4.9%를 차지하여 감소추세가 지속됨.
- 1998년의 부문별 구성비는 재배업 3.6%, 축산업 0.7%, 임업 0.2%, 어업 0.5%, 농림어업서비스 0.1% 등임.

농림어업의 부문별 부가가치 및 구성비(명목기준)

	1997		1998		1997/98 증감	
	생산액 (10억원)	구성비 (%)	생산액 (10억원)	구성비 (%)	생산액 (%)	구성비 (%)
국내총생산	453,276.4	100.0	449,508.8	100.0	△0.8	-
농 립 어 업	24,257.5	5.4	22,058.8	4.9	△9.1	△0.5
농 업	21,191.7	4.6	19,817.4	4.3	△6.5	△0.3
-재배업	17,942.6	3.9	16,444.5	3.6	△8.3	0.3
-축산업	3,429.1	0.7	3,372.9	0.7	△1.6	0.0
임 업	883.3	0.2	833.6	0.2	△5.6	0.0
어 업	2,672.3	0.6	2,502.4	0.5	△6.4	△0.1
농림어업서비스	351.7	0.1	342.1	0.1	△2.7	0.0

자료: 한국은행

1.3.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의 변화

- 산업 전반의 생산위축으로 1998년 전산업 취업자는 1,992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림어업 취업자는 농업부문으로의 전업 등 귀농인구 증가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242만 4천명에 달함. 1998년 전산업 취업자중 농림어업의 취업자 비중은 전년대비 1.2% 포인트 증가한 1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 취업자 구성

	1997		1998		1997/98 증감	
	취업자수 (천명)	구성비 (%)	취업자수 (천명)	구성비 (%)	취업자수 (천명)	구성비 (%포인트)
전 산업 취업자	21,048	100.0	19,926	100.0	△5.3	-
농림어업 취업자	2,324	11.0	2,424	12.2	4.3	1.2
광공업 취업자	4,501	21.4	3,904	19.6	△13.3	△1.8
서비스업취업자	14,223	67.6	13,598	68.2	△4.4	△0.6

자료: 통계청

1.4. 식료품 가격의 변화

- 생산자물가의 경우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급등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투입재 가격이 크게 올라 공산품 가격과 농산물 중에서는 채소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소비자가격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채소류와 유란의 가격이 크게 상승함.
- 1998년중 생산자물가는 전년대비 12.2% 상승하였고, 농산식품은 전년대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 보면 연료 및 비료가격의 상승으로 채소류가 전년대비 21.2% 상승, 곡류가 전년대비 5.0% 상승, 축산물이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과일류는 전년대비 10.8% 하락함.

- 1998년 소비자물가는 경기침체 따른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5% 상승함.
- 식료품은 8.7% 상승하여 거의 전품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상승품목으로 곡류가 9.0%, 채소·해초류가 11.9%, 유란이 17.4% 상승함.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의 변화(1995=100)

구 분		가중치	1997	1998	1997/98 증감(%)
생 산 자 물 가 지 수	총 지 수	1000.0	107.2	120.3	12.2
	농 립 수 산 품	66.1	103.5	107.5	3.9
	농 산 식 품	57.2	101.9	106.3	4.3
	곡 물 류	15.3	121.1	127.1	5.0
	채 소 류	12.9	89.2	108.1	21.2
	과 실 류	10.6	99.9	89.1	△10.8
	축 산 물	14.5	94.9	98.6	3.9
	공 산 품	664.9	105.7	121.0	14.5
	식 료 품	36.1	108.6	134.2	23.6
	사 료	8.3	127.8	157.9	23.6
소 비 자 물 가 지 수	서 비 스	231.8	112.6	121.8	8.2
	총 지 수	1000.0	109.6	117.8	7.5
	식 료 품	302.9	107.9	117.3	8.7
	곡 류	34.9	119.6	130.4	9.0
	채소·해초류	28.9	107.5	120.3	11.9
	과 실 류	23.6	98.3	99.6	1.3
	육 류	33.0	98.7	100.9	2.2
	유 란	11.8	109.5	128.5	17.4
	어 개 류	26.4	105.6	114.5	8.4

자료: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

2. 주요 농업지표의 변화

2.1.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가형태의 변화

- 최근 10년간(1987~97) 농가호수는 연평균 -2.6%, 농가인구는 -5.4%씩 감소해 왔으나, 1998년은 경기침체에 따른 도시가구의 귀농과 농업으로의 전업 및 귀향인구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농가호수는 1.9% 감소, 농가인구는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감소 폭이 둔화됨.
- 1998년 중 귀농가호수는 6,409호로 전년대비 255.6%의 급속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는데, 귀농자들은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쌀농사 등 경종농업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됨.
 - 농가인구 구성에 있어서 감소 추세에 있던 20~29세의 젊은층 인구의 귀향 증가에 힘입어 1998년에 45만명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60세 이상 농가인구는 전년대비 0.5% 증가한 134만 4천명에 달해 노령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가구수 및 농가인구의 변화

	1997	1998	1997/98 증감(%)
농가수(천호)	1,440	1,413	△1.9
- 귀농가구(천호)	1.8	6.4	255.6
농가인구(천명)	4,468	4,400	△1.5
- 20~29세(천명)	440	450	2.3
- 60세 이상(천명)	1,336	1,343	0.5

자료: 농림부

- 농가형태별로 보면, 전업농가는 1998년에 전체농가의 63.2%인 893천호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겸업농가는 전체농가의 36.8%를 차지하는 520천호로서 전년대비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업농과 겸업농의 농가구성 변화

단위: 천호

	1997	1998	1997/98 증감(%)
전업농	844	893	5.8
겸업농	595	520	△12.6

자료: 농림부

- 영농형태에 있어서는 사료비와 농약비 등 농업투입재 가격의 상승과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벼농사, 축산 및 과수 농가는 감소한 반면, 채소, 특용 및 화훼위주 농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금회전이 빠르고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인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농가의 영농형태 변화

단위: 천호

	1997	1998	1997/98 증감(%)
벼재배농가	849	820	△3.4
과수농가	158	151	△4.4
채소농가	234	252	7.7
특작농가	31	40	29.0
화훼농가	9	10	11.1
축산농가	84	72	△14.3
기타농가	75	69	△8.0

자료: 농림부

2.2. 농경지 면적의 변화

- 농경지면적은 1990년 이후 매년 감소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95년에는 4만 7,400ha가 감소하였으나 '96년부터 감소면적이 점차 줄기 시작하여 '98년에는 191만 100ha로 전년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1998년중 개간, 간척 등으로 1만 2,300ha가 증가하였으나,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으로 2만 5,700ha가 감소하여 1만 3,400ha가 순감소됨.
 - 1998년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90년 들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IMF 영향으로 공장신축 등 건물건축경기가 위축되어 경지사용이 면적이 전년대비 39.4% 줄어든 요인과,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단속강화 등의 요인으로 나타남.

경지면적의 변화

단위: 천ha

			1997	1998	1997/98 증감(%)
경 지 면 적		논	1,162.8	1,157.3	△0.5
		밭	769.3	760.7	△1.1
		계	1,923.5	1,910.1	△0.7
경 지 면 적 감 소 사 유	증 가 요 인	개간	5.5	5.9	7.3
		간척	3.1	3.1	0.0
		복구	2.3	3.3	43.5
		계	10.9	12.3	12.8
	감 소 요 인	건물건축	10.4	6.3	△39.4
		공공시설	7.1	5.9	△16.9
		유흥지	9.7	8.3	△14.4
		기타	5.7	5.1	△10.5
		계	32.9	25.7	△21.9

자료: 농림부

2.3. 농림예산의 변화

- 1998년도 농림예산은 일반회계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특회계와 재특회계분의 감소로 7조 8,074억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고, 그 중 투융자사업비는 5조 3,275억원으로 전년대비 8.3% 감소함.

농림예산의 변화

	1997	1998	1997/98 증감(%)
국가예산(조원)	74.0	83.5	12.8
- 농림예산비중(%)	10.8	9.3	△1.5%포인트
농림예산(억원)	79,798	78,074	△2.2
- 일반회계(억원)	17,570	20,965	19.3
- 농특회계(억원)	55,697	52,784	△5.2
- 재특회계(억원)	6,531	4,325	△33.8
투융자사업비(억원)	58,126	53,275	△8.3

자료: 농림부

2.4. 농업투입재 및 농산물의 가격 변화

- IMF관리체제 이후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농업용자재 및 사료류의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지역의 임금은 취업자 증가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농가구입가격지수(1995=100.0)에 있어서 1998년 농업투입재가격은 전년대비 18.7% 상승하였고, 비료류는 전년대비 41.5%로 급등하였고, 농약류가 전년대비 29.6 상승, 사료류가 전년대비 2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의 취업자의 증가로 1998년 농촌임료금지수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남자와 여자의 임금은 전년대비 각각 3.2%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업용품 및 농업임료금 지수의 변화

	1997	1998	1997/98 증감(%)
농업용품지수	100.0	118.7	18.7
· 비료류 가격	105.8	149.7	41.5
· 농약류 가격	108.0	140.0	29.6
· 사료류 가격	110.5	136.4	23.4
농촌임료금지수	110.2	107.8	△2.2
· 남자임금(원/일)	38,381	37,136	△3.2
· 여자임금(원/일)	27,746	25,885	△6.7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2.5. 농산물 생산량의 변화

□ 1998년 농산물 생산량을 품목별로 보면, 쌀은 전년대비 6.5% 감소, 고추 26.9% 감소, 양파 17.8% 감소, 무 1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과실류에 있어서 사과가 전년대비 29.6% 감소, 감귤이 전년대비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산물 생산량의 변화

	1997	1998	1997/98 증감률(%)
쌀	37,842	35,397	△6.5
고추	201	147	△26.9
마늘	394	394	0.0
양파	740	872	△17.8
무	1,276	1,060	△16.9
배추	2,479	2,779	△12.1
사과	652	459	△29.6
배	260	260	0.0
포도	384	398	3.6
감귤	649	512	△21.1
쇠고기	237	263	10.8
돼지고기	699	733	4.9
닭고기	260	245	△5.8
우유	1,984	2,027	2.2

자료: 농림부

2.6. 농산물 소비량의 변화

- 1998년 농산물 소비량(1인당 소비량 기준)은 쌀이 전년대비 3.1% 감소한 99.2kg, 고추가 전년대비 15.6% 줄어든 3.8kg, 사과가 전년대비 29.8% 줄어든 9.9kg 나타났고, 축산물에 있어서는 쇠고기가 전년대비 6.3% 줄어든 7.4kg, 닭고기가 전년대비 13.1% 줄어든 5.3kg으로 나타난 반면 돼지고기는 전년대비 9.9% 증가한 16.7kg으로 나타남.

1인당 농산물 소비량의 변화

단위: kg

	1997	1998	1997/98 증감(%)
쌀(1인당소비량)	102.4	99.2	△3.1
밀가루	3.4	3.7	8.8
쇠고기	7.9	7.4	△6.3
돼지고기	15.2	16.7	9.9
닭고기	6.1	5.3	△13.1
고추	4.5	3.8	△15.6
사과	14.1	9.9	△29.8
감귤	14.8	11.0	△25.7

자료: 농림부

2.7. 농산물 유통마진의 변화

- IMF관리체제 이후 본격 추진한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물류비용의 감소,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 인하 등의 요인으로 1998년 농산물의 평균 유통마진율은 52.2%로 전년대비 4.3%포인트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농가수취율은 47.8%로 전년대비 4.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 유통마진율을 보면, 고랭지무가 전년대비 9.8%포인트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75%, 양파 62.7%, 오이 50.9%, 포도 41.2%, 참외 36%, 건고추 26.3%, 쌀이 15.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농산물 판매의 농가수취율 및 유통마진율 변화

	1997	1998	1997/98 증감(%)
농가수취율	43.5	47.8	4.3
유통마진율	56.5	52.2	△4.3
-직접비	18.9	18.7	△0.2
-간접비·이윤	37.6	33.5	△4.1

주요품목의 유통마진율 변화

	1997	1998	1997/98 증감(%)
고랭지무	84.8	75.0	△9.8
가을무	70.0	74.3	4.3
가을배추	76.0	72.3	△3.7
양파	63.9	62.7	△1.2
수박	58.3	52.9	△5.4
마늘	38.3	52.7	△14.4
감귤	62.7	52.4	△10.3
오이	55.8	50.9	△4.9
포도	37.8	41.2	3.4
배	49.4	38.0	△11.4
사과	39.5	36.2	△3.3
참외	53.3	36.0	△17.3
건고추	37.6	26.3	△11.3
쌀	19.3	15.9	△3.4

자료: 농림부

2.8. 농산물 수출입의 변화

□ 농림산물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13.8% 증가하였으나, 원화가치 하락으로 달러화 표시 수출금액은 6.7% 감소하였으며, 농림산물 수입물량은 소비위축으로 물량은 18.3% 감소, 금액기준으로는 3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농림산물 무역수지는 47.7억 달러 적자로 전년동기에 비해 적자폭이 42.9% 축소되어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 보면, 수출에 있어 돼지고기, 채소류, 화훼류 등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과일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농산물 수입은 외환 위기에 따른 환율 상승,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고추와 마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입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산물 수출입 변화

단위: 천톤, 백만 달러

		1997		1998		1997/98 증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국가전체	-	136,164	-	132,313	△2.8	△2.8
	농림산물	1,260.9	1,753.2	1,434.9	1,635.4	△6.7	△6.7
	농축산물	1,104.0	1,507.8	1,217.3	1,390.9	10.3	△7.8
	-농산물	979.2	1,190.0	1,048.5	1,005.6	7.1	△15.5
	· 과일류	71.7	63.8	46.5	39.4	△35.1	△38.2
	· 채소류	24.5	78.1	54.6	101.3	123.0	32.1
	· 화훼류	0.7	5.3	2.4	12.2	263.3	132.7
	-축산물	124.8	317.8	168.8	385.3	35.3	21.2
	· 돼지고기	57.4	242.3	98.5	312.7	71.7	29.1
	· 닭고기	0.4	1.2	0.9	1.6	113.4	32.7
	임산물	156.9	245.4	217.6	244.5	38.7	△0.4
수입	국가전체	-	144,160	-	93,282	-	△35.3
	농림산물	32,417.3	100,105.3	26,491.8	6,406.3	△18.3	△36.6
	농축산물	22,161.1	7,619.0	21,207.6	5,423.5	△4.3	△28.8
	-농산물	21,650.0	6,336.0	20,865.7	4,696.6	△3.6	△25.9
	· 곡류	11,916.3	1,916.7	12,062.7	1,637.9	1.2	△14.5
	· 두류	1,616.9	534.8	1,453.6	393.6	△10.1	△26.4
	· 과일류	381.1	347.0	231.9	194.1	△39.1	△44.1
	-축산물	511.1	1,283.0	341.9	726.9	△33.1	△43.3
	· 쇠고기	171.6	480.6	100.8	268.4	△41.2	△44.1
	· 유제품	42.9	110.0	25.8	60.0	△39.9	△45.5
	임산물	10,256.2	2,486.3	5,284.2	982.8	△48.5	△60.5
수지	국가전체	-	△7,996	-	39,031	-	-
	농림산물	-	△8,352	-	△4,771	-	△42.9

자료: 농림부

(김창길 작성)

최근 미국의 농업불황과 대책

1. 최근의 농업불황 요인

□ 농산물 가격의 하락

- 「1996년 농업법(Farm Bill)」의 식부제한이 해제되어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지난 3년간 작황호조로 곡물생산이 증가하였으며, 돼지의 경우 대만의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량이 확대되는 등 농산물 공급이 크게 증가했으나,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농산물 수입수요가 감소하여 주요 농산물가격이 하락함.
- 1998년의 주요곡물과 돼지의 농가판매가격은 199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는데, 품목별 전년대비 가격하락율은 소맥 16.8%, 대두 17.4%, 옥수수 22.7%, 돼지 72.2%

□ 농산물 수출 부진

- 아시아와 러시아의 경제위기 및 여타 경쟁국의 수출시장 잠식에 따른 농산물 수출물량의 감소와 국제곡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산물 수출액은 1997 회계연도의 약 574억 달러에서 1998년에는 537억 달러 수준으로 6.4% 감소하였고, 1999년에는 약 4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소맥, 옥수, 미곡 등 곡물류의 1998년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7% 감소하였고, 대두는 61억 달러로 12% 감소.
- 아시아지역(중동지역 제외)으로의 농산물 수출액은 1998년에 219억 달러로 전년대비 17% 감소하였고, 한국(미국의 농산물 수출국 가운데 4위 차지)으로의 농산물 수출액은 22.4억 달러로 전년대비 31.8% 감소

※ 미국의 주요곡물에 대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1997/98년도 기준)은 대두 60%, 옥수수 51%, 소맥 24%, 쌀 11% 등으로 파악됨.

□ 농가 소득 감소

- 농산물가격의 하락에 따라 미국의 농업소득(농민들이 얻은 순부가가치)은 1998년에 460억 달러로 전년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직접지불보조를 제외하는 경우 농업소득은 1998년의 332억 달러로 전년대비 21.5%의 큰 폭으로 감소.
- 농가소득유지를 위해 정부는 1998년도 직접지불 보조금을 전년대비 70.7% 증액한 128억 달러(17조 8,688억 원)를 지원함.
- 1999년도 농업총소득은 436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5.2% 감소, 보조금을 제외한 농업소득은 296억 달러로 전년대비 1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의 직접지불 보조금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140억 달러로 농업소득중 보조금의 비중은 32.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1999년의 농업소득 전망치는 지난 12월에 예측치 보다 10억 달러 감소하여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농업소득과 정부 직접보조금

단위 : 억 달러

구분	농업소득	증감률 (%)	농업소득 (보조금제외)	증감률 (%)	직접 보조금	증감률 (%)	농업소득중 보조금 비중(%)
1996	534	48.3	461	60.6	73	0.0	13.7
1997	498	△6.7	423	△8.2	75	2.7	15.1
1998	460	△7.6	332	△21.5	128	70.7	27.8
1999 ^P	436	△5.2	296	△10.8	140	9.4	32.1

자료: USDA/ERS, Farm Business Economics Forecasts (www.econ.ag.gov/Briefing/fbe/fore/fore.htm), 1999. 3.

2. 농업불황 타개를 위한 주요 지원대책

2.1. 단기 긴급농가지원 프로그램

□ 생산자율보조금의 조기지급

- 주요곡물(소맥,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면화 및 쌀)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1996년 식부면적을 기초로 재배면적 계약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산자율계약(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1999년 세출예산법에 55억 달러규모의 긴급 농가지원 예산을 추가 책정하여 보조금 규모를 확대
- 직접보조금 27억 5천만달러는 1998년 12월 중순 또는 1999년 1월 중순에 지급되고, 나머지는 회계연도말인 1999년 9월말 이전에 지급될 예정임.

□ 소득유지를 위한 직접보조의 확대

- 농무부는 당면한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충해 주기 위해 1999년 세출예산법에 60억 달러 규모의 농가지원 예산을 책정하고, 직접지불보조금을 확대
- 가격하락 작물재배 및 낙농농가 지원 : 30억 5,700만 달러
- 자연재해 피해농가 지원 : 25억 7,500만 달러
- 작물보험료 정부보조 확대 : 4억 달러

□ 소규모양돈농가지원(Small Hog Operation Payment) 프로그램

- 양돈부문의 불황에 대한 대책으로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1,00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양돈농가(미국 전체 양돈농가의 80~90% 정도를 차지하며 대략 100,000농가에 달함)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지원 프로그램으로 1999년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하였고, 3월 26일에 양돈농가에게 현금지급.

- 현금보조의 내용은 도살용 돼지 두당 5달러의 현금 보조를 지급하며 최대 500마리인 2,500두 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음. 1998년 연간 조수입이 250만 달러 이상인 농가는 정책수혜 대상에서 제외.
- 소규모양돈농가지원 프로그램 지원액은 60억 달러규모의 긴급농가지원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직접현금지원으로 45,293농가에 지급되는 총액은 4,933만 달러로 농가당 평균 1,100달러가 지급됨.

2.2.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

- 미공법(PL 105-277)에 의해 작물재배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을 위해 약 20억 3,750만 달러의 지원을 승인하였고, 이들 가운데 4억 달러가 작물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한 보험가입 지원금으로 투입되었는데, 1999년도 생산자 지불 프리미엄의 30%를 지원(1999.3.15일까지 신청).
- 자연재해로 인해 과거 5년간 평균 단수의 35%이상 감소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게되는데, 재해지원금 한도는 농가당 8만 달러이고, 연간 총 농업수입이 250만 달러 이상인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작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65%를 보상받게 되며, 작물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작물에 대해서도 재해발생시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로써 비보험작물재해지원 프로그램(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작물보험료의 60% 수준을 보상받음.
- 농가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들을 검토하기 위해 미농무부장관 자문기구로 「위기관리자문위원회(Risk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 RMAC)」를 설치한다고 발표(USDA, 1999.3.31).
- RMAC는 최근 수출시장 침체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농민들에게 경영위기 대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광범위한 인사(농민과 보험회사, 농업단체와 지역민간기구의 대표, 연방 주 및 지역담당 공무원 등) 20명으로 1999년 4월 30일까지 구성될 예정임.

- RMAC는 농부부장관 또는 장관의 지명자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게 되며 농무부의 위기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이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게 됨.

2.3.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 수출신용보증제도의 확대

- GSM-102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상품신용공사(CCC)가 미국산 농산물의 외국 수입업자에 대한 미국내 은행의 상업대출을 지급 보증하는 제도로서 미국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수출신용보증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1997년도의 29억 달러에서 1998년에는 45억 달러로 55% 정도 확대되었으며, 1999년도에는 48억 달러로 더욱 늘릴 계획임.
- 농무부는 경제위기하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수출신용보증규모를 크게 늘려 1998년도 이들 국가에 대해 25억 달러의 신용보증 제공하였음.

□ 최근 미국은 한국으로의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1999회계년도에 10억 달러의 농산물수출신용차관(GSM-102 export credit guarantees)을 제공한다고 발표(미농무부, 1999년 3월29일)

- 우리 나라는 이 차관으로 보리, 옥수수, 수수, 귀리 등을 포함한 사료곡물(3억 2,000만 달러), 콩(1억 5,000만 달러), 소맥(1억 1,000만 달러), 쇠고기(6,000만 달러), 돼지고기(2,500만 달러), 과채류(500만 달러) 등 주요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쓰이게 되는데, 거래를 위해서는 1999년 9월 30일 까지 CCC에 등록해야 됨.

3. 미국 농업불황과 대책의 시사점

3.1. 시장지향적 농정기조의 한계와 농가소득 안전망의 확대

- 미국의 「1996년 농업법」은 차액보상과 생산조정을 주요수단으로 했던 과거 정책기조를 탈피하여 혁신적인 시장지향적 틀로 전환하여 2002년까지 유지될 것이나, 농산물 가격 및 농업소득안정 장치의 결여로 최근과 같은 과잉생산 또는 수요침체에 따른 농업불황의 적절한 대응에 한계를 나타냄.
- 현행 농업법에서의 농가소득지지정책인 생산중립적 직접지불 보조금은 시장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최근의 농업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입법조치를 통해 60억불 규모의 추가적 직접지불 보조금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음.
- 최근의 농업불황을 계기로 1990년대 중반 농촌경제의 호황을 전제로 제정된 「1996년 농업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작물보험 및 소득보험 등 농가소득 안정망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3.2. 통상압력의 강화와 WTO 차기협상에의 영향

- 최근 미국의 농업불황은 WTO 차기협상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가능한 빨리 협상을 종결짓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농업불황에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정액보조금의 확대, 자금융자지원, 농산물의 해외 원조, 수출 보조금 확대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차기협상에서 국내보조금의 감축을 적극 주장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미국의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차액보상제도로 부터 정액보조제도의 강화는 미국 국내보호지출의 대종이 환경보호 및 재해보상 등과 연결되어 보호삭감 대상에서 면제(Green Box)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WTO 차기 협상을 앞둔 포석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 농산물수출 촉진을 위해 시장개방의 확대에는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기 협상에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관세를 낮추도록 설득함으로써 미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 최근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의 누증으로 외국의 통상관행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당한 것으로 간주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슈퍼 301조」를 강화함으로써 주요 교역상대국에 시장 개방압력을 가하면서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강화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발표된 국별무역장벽 보고서(1999년 3월)에 제시된 우리 나라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장벽 사례 20건중 농산물 및 식품과 관련된 것이 12건(복숭아, 감자, 포도주, 썬키스트 등 수입·통관제도)으로 나타나 국내농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3.3. 미국 농업불황 대책의 시사점

- 미농무부는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의 곡물 재고 및 수출 시장에서 여타 경쟁국의 생산 증가, 아시아와 러시아 경제의 단기간에 회복 난망 등 농업불황의 심화를 크게 우려하여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농업경영 위기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기초로 한 정책추진을 위해 「위기관리자문위원회(RMAC)」의 설치 및 최근의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농업부문 지원 확대하고 있음.

- 농업불황의 심화는 농가자산가치의 하락과 농가 도산을 초래하여 농업금융기관의 파산 등 국가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함. 따라서 1980년대의 경험을 되살려 농가소득 유지를 위해서는 농가구제금융과 같은 긴급재정지원과 강력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미농무부는 농업경영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농업 불황 타개를 위하여 2000년 회계년도에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가할 것임을 발표함.

(김창길 작성)

농업·농촌경제동향 1999 봄

찍은날 1999. 4. 15 펴낸날 1999. 4. 15
발행인 유 철 호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문 원 사 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